

MERZINE

2017 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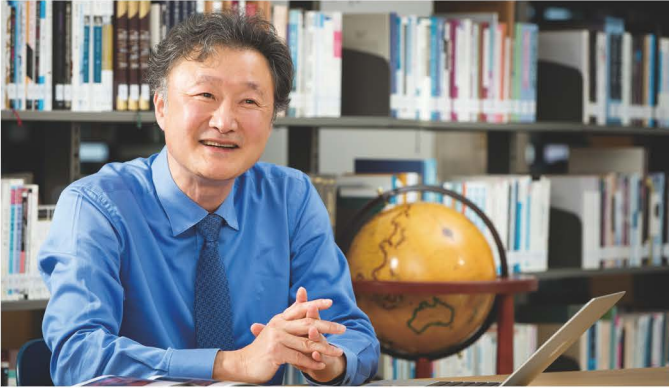
Vol 02



목차

003	여는 글
004	해양칼럼
030	해양유물 이야기
052	해양전시 이야기
078	박물관 人
092	나도 해양인
120	박물관 뉴스
138	편집인의 글

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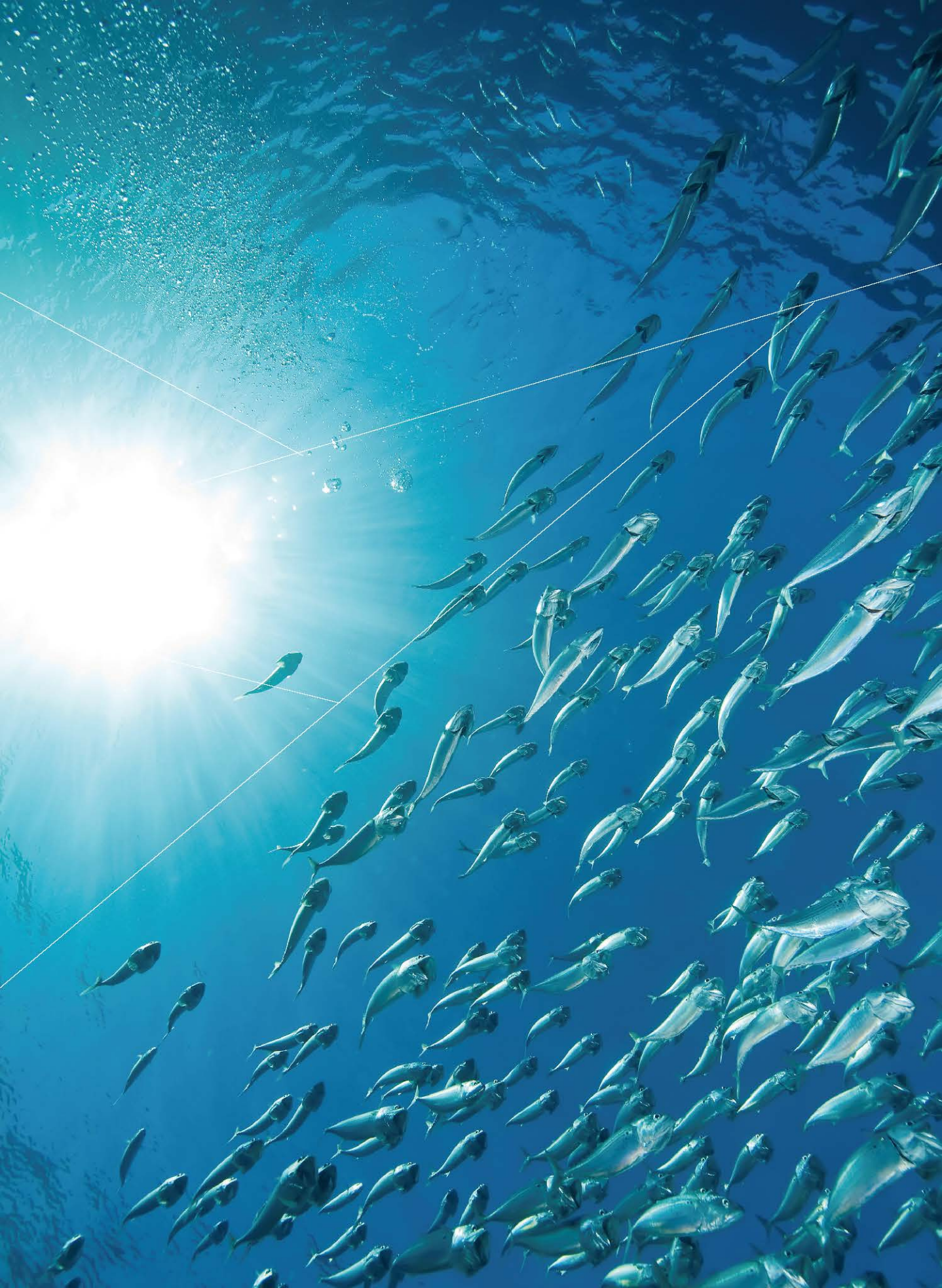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운영지원단의 형태로 임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 4월 20일 “국립해양박물관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식 출범하여 올해로 세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생일은 봄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움츠렸던 몸이 펴지고, 온갖 봄꽃이 눈을 즐겁게 하며, 쑥이며 냉이며 땅기운을 잔뜩 품은 풋풋한 나물들이 침샘을 자극하여 오감이 환희로 가득 차는 그런 봄 말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많은 봄의 속성을 담은 박물관이 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매년 백 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시는 해양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보내주시는 성원의 힘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또 훌쩍 흘러가 지난 일 년 간 국립해양박물관의 이야기들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내놓습니다. MERZINE은 바다를 뜻하는 MER와 잡지(ZINE)의 합성어로, 해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웹진이자 연간 출판하는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해양과 관련한 알차지만 읽기 쉬운 다양한 지식과 우리 직원들의 친근한 모습, 그리고 알지 못했던 숨은 해양인들 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만나며 담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바다가, 또 국립해양박물관이 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으로 해양지식의 보고로, 국립해양박물관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해양컬럼

바다와 바람이 부른다
원양어업 진출 60주년에 거는 기대
격렬비, 열도
우리나라의 보물선과 수중고고학
안녕과 만선의 기원이 담긴 풍어제
이제는 물도 복지다.

Merzine Column



제 11호
찬란한 도전

해양칼럼
Merzine Column



바다와 바람이 부른다

정제목/ 대한세일링연맹 회장

요트 세계 일주는 적도를 2번 이상 넘고, 모든 경선을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여 출발지와 같은 항구로 돌아오는, 지구 의 적도 둘레인 21,600리(40,000km) 이상을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선 무기항, 무원조, 단독항해 등의 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항구나 육지에 정박해서는 안 되며, 기상정보를 제외한 여타의 물리적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홀로 해내야 한다. 심지어는 애완동물과의 동승도 허락되지 않는다.

항해장비가 고장 나면 혼자 힘으로 고쳐야 하고 짐채만 한 파도가 덮쳐와 부상을 당해도 육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포기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가기엔 너무나 멀고 먼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많은 도전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도전이 요트 세계 일주라고도 한다. 때론 목숨을 걸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뿐 아니라, 극한의 고독마저 친구 삼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일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람과 파도이다.

두려워하면서도 끝없이 대화하며 그 흐름을 읽어야만 한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민하게 읽어내야 한다. 돛은 바람을 품고, 선체는 부드럽게 파도를 타고 넘으며 항해할 때, 마침내 바다와, 아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느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해방감은 현대인들이 쉬이 접하기 힘든 감정이라 한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다로 불러들인다. 바다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것을, 설렘을 안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요구해온다. 그것이 진정한 바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요트는 아직 소수 마니아층이나 상류층만이 즐긴다는 인식 속에 1회성 체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트뿐만이 아니다. 해양레저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고 부담스럽다. 다양한 특색을 지닌 삼면의 바다와 여가를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추고서도 바다를 만난 우리는 기껏해야 해수욕장에서 물장구를 치는 것으로 바다에서의 놀이를 끝내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 놀 거리와 더 새로운 모험이 가득한 저 무한한 공간을 앞에 두고서 말이다.

국민소득과 레저스포츠의 변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레저스포츠 전문가들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가면 테니스 인구가 증가하고 1만 5천 달러에서는 골프, 2만 달러 수준에서는 승마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며, 보통 요트는 2만 5천 달러를 넘어서야 서서히 문화가 형성되고 3만 달러에 이르면 대중화 된다고 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준비되어 있을까. 요트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3대 요소인 이용자, 마arina, 요트보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하고, 요트를 계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arina 시설을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arina를 중심으로 각종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등 요트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곧 여름이 온다. 벌써부터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이번 여름, 연안의 물놀이도 좋지만 바다엔 요트 세일링을 포함한 더 많은 체험거리가 산재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은 진취적이고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강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다가 주는 자유와 경이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양칼럼
Merzine Column



바다는 그 하나의 영혼
그 위대한 출항
넓고 먼 대양에서 가장 작고도 자유의 조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모체로 영원한 원동 삼천
억근들의 수고한 피땀과 열정적인 강행진들의
개척자의 정신을 기리는 본에서 한양어업
전설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이 프로젝트를 세웠다.
2021. 8. 29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양어업발전위원회

한양어업 진흥 기념비

오래전 한양어업은 바다를 끼고서
사람과 어귀를 잇는 길로 번창을
이룬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바다와 어귀를 잇는 길은
2020년 12월 31일 0시 00분
정확히 끝났다. 한양어업은
1961년 8월 29일
한양어업진흥법 제정
이후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이 프로젝트를 세웠다.
2021. 8. 29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양어업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원양어업 진출 60주년에 거는 기대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6월 29일 지남호가 인도양 참치연승 시험조업을 위해 부산항을 출항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날로부터 만 60년이 되는 지난 6월 29일 오륙도가 보이는 국립해양박물관 잔디밭에 원양어업 진출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 행사를 가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돌이켜보면, 우리 원양어업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것은 물론이고 연근해어업과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주요한 수산단백질 공급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기반이 미비했던 1960~1970년대에 외화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일등공신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파독 광부나 간호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경제적 기여도만 놓고 보면 우리 원양 어업인들이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파독광부, 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억 153만 달러 인데 비해 원양산업 역군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1957년 지남호의 참치연승 사업조업이 시작된 이후 1979년까지 약 20억 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 안팎을 차지할 만큼 그 기여도가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그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해 한때 100만 톤을 초과하기도 했지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이후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조치 등으로 조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금은 조업 척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어획량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지금도 연안국과의 합작사업 진출을 포함하여 한 해 생산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 수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어류생산량의 40% 이상을 원양어류가 차지할 만큼 원양어업은 현재까지도 소중한 수산식량산업으로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원양어업이 걸어진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자랑스럽기 그지없지만 그저 지난날의 화려한 영광만을 얘기하고 있기에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원양산업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각종 강화된 원양어업 규제 조치로 원양선사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어장확보와 원양어선 노후 화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흔히들 원양산업을 사냥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이 같은 비판적 전 망에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

실례를 들어 최근 10여년 동안 신조된 15척의 참치선망어선은 과거 300톤급 참치독향선과 견주면 100척 이상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으며 생산량 면에서는 200척 이상 신조한 것과 맞먹는다. 비록 어선 수는 절대적으로 줄었지만, 원양어선의 생산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 원양어업의 경쟁력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선현대화 및 연안국과의 국제어업 협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태평양 연안국들을 비롯한 수산자원을 가진 여러 나라들은 어선 등 생산수단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확보를 위해 그들의 수산자원을 외국 어선들에게 할애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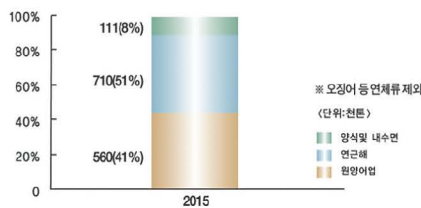
결국, 원양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스페인을 비롯한 EU 국가들보다 서로 얼마나 더 연안국들의 자원을 확보하느냐와 조업 어선이 현대화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이 우리나라 보다 더 많은 조업 쿼터를 확보하게 되고 어선이 현대화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원양업계의 자구 노력 못지않게 연안국가들로부터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어업협력 강화 뒷받침과 선박 신조 등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0년 전 지남호 시험조업은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간 기업인 제동산업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그 후로도 계획조선사업을 통해 어선세력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원양어업 육성 의지를 보인 결과 지금의 원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원양어업 진출 60주년을 맞아 신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비롯한 새 정부가 우리 원양산업이 제 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원양산업 육성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

연근해어업 생산 한계에 따른 수산식량 대체산업

〈원양어업 : 우리나라 수산산업의 3대축의 하나〉

〈어업별 어류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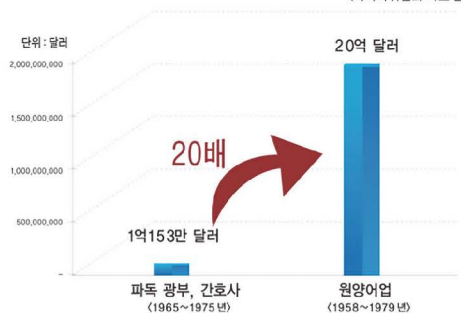


1960-1970년대 경제발전 초석

외화획득 파동 광부 · 간호사 20배 규모

외화획득액 비교

〈과거사위원회 자료 참조〉



제 13호
그 섬에 가고 싶다.

해양칼럼
Merzine Column

격렬비열도, 과문한 탓에 들어본 적 없는 섬이다.

이름 또한 독특하다.

어지간하면 '-도'를 붙여도 두 글자, 세 글자가 대다수인데 다섯 자로 보인다.

알고 보니 격렬비와 열도가 합쳐진 말이다.

'격렬비'는 새들이 무리지어 나는 모양을 뜻하는 한자어라고 한다. 조금 아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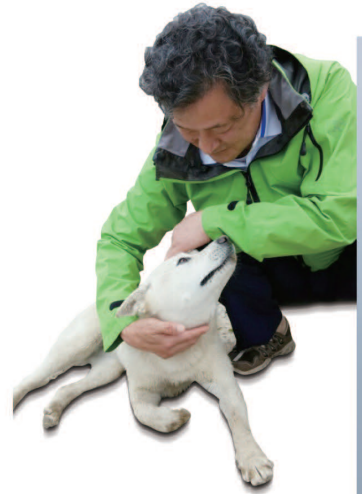
'격렬과 / 비열 사이 / 그 / 어딘가에 / 사랑은 있다'라며 낭만을 부여하던 시인도 있었으므로,

원뜻이야 어찌됐든 이 섬의 독특한 이름은 듣는 이에게 저마다 어떤 상상

또는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격렬비, 열도.



제이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손재학 관장님 외 6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일행은 북격렬비도 등대 및 주변 생태조사를 위해서 5월 30일에 부산을 출발, 31일 군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마친 뒤 태안군 모항항에 도착했다. 낮에 비가 왔던 터라 날은 끄느
름했다. 바다에는 해무도 부영게 끼어있었다. 우리의 목적지에는 정기적인 선편이 없어 9.77톤급 갈매기호를 빌렸다. 배에 타자 모두에게 구명조끼가 배분되었다.

해상에서는 선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해경 두 사람이 탑승자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사항해를 기원해주었다. 선착장에 매어있던 배가 마침내 신나게 바다 위로 출달음쳤다. 어느 순간 문자와 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게 되자 튜브를 끼고 동동 떠다니는 바다가 아닌 진짜 넓은 바다로 향한다는 느낌과 함께 고립감과 설렘이 동시에 일었다.

2시간 반만에 드디어 마주한 북격렬비도는 방문객이 품은 상상이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 어울릴 법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고치자면, 섬의 정확한 형상을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북격렬비도는 시야가 최악인 바다위에 갑작스레 장벽처럼, 허락받지 못한 자들의 여로를 가로막는 장수처럼 나타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무를 감주처럼 두텁게 둘러 그 속을 능히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섬은 물 입자의 장막 뒤에서 객의 상상에 따라 얼마든지 은밀하고 무쌍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909년 6월부터 등대를 설치해 바다를 밝혀온 이 섬은 1994년에 무인화된 채 21년을 갱이갈매기 떼에 의지해 지냈다.

2015년 다시 유인화된 것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이라고 한다. 서격렬비도에서 서쪽으로 22km를 가면 공해상이고 260km를 가면 산둥반도라고 하니 중국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의 영해와 해양 관할권을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23개의 영해기점 섬들 중 하나이므로 그 중요성 또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형제섬이자 국가 소유인 북격렬비도에 항로표지관리원이 상주하게 된 것은, 유사시에 사람의 거주와 지속적인 관리 여부 등이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항로표지관리원이 내려와 우리를 맞았다.

중국과 가까운 서단의 섬이라 산둥반도에서 개 짖는 소리까지 들린다더니 과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섬에서 키우는 개 '격렬'이의 고향질이다. 생킨 깃은 백구인데 습기 먹은 털을 흙바닥에 비벼대 몰골은 똥개가 따로 없다. 낫선 이들이 대거 내리자 목청이 한껏 커진다. 네 명에서 둘 씩 조를 이룬 항로표지관리원들은 각자 보름에 한 번씩 교대하기 때문에, 입도 이후 같은 사람과 쪽 함께해보지 못한 백구 녀석의 낯가림이 심하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노레일에 짐이 하나둘 실려 가는 모습을 보다 홀로 관리소로 출발했다. 길은 지그재그로 나있어 올라가자니 10분을 훌쩍 넘긴다. 불현듯 바라보니, 선착장이 보이지 않는다. 불과 조금 전 지나친 아래쪽 길도 희미하게 번져있다. 이름 모를 새소리가 나무 수풀 사이에서 날갯짓 한 번 없이 포르르 울어 앞을 보라 한다. 안개 속을 걷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실감이 난다.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어왔다는 실감. 걸어 나갈 때마다 자욱한 해무가 걷히고 길이 끝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몽환적이었다.

이른 아침, 악패듯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잠을 깨웠다.

세상모르고 자던 사람들 대부분이 놀라 일어나 앉았다. 다름 아닌 전기혼(electric horn) 소리다. 등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어두운 바다 위를 비추는 외로운 빛 한 줄기와 묵묵히 바닷길을 밝히는 등대지기의 고독'을 떠올리며 낭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해무의 장막을 찢어버리기라도 할 듯한 이 날카로운 소리는 등대, 나아가 항로표지라는 것이 사람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현장에 존재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등대는 항로표지 중 하나로 불빛을 통해 항해중인 선박들에 바다와 육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광파표지다. 불빛뿐만 아니라 전파나 음파, 형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전기혼은 그 중 음파표지이다. 컷속이 뜨거울 정도로 혼이 울리는 걸 보니 어젯밤의 걱정이 무색치 않게, 오늘 아침에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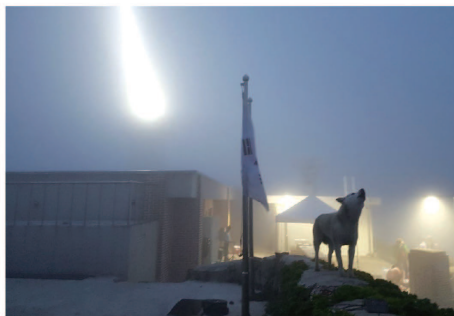
결국 그날 아침에 예정되어 있던 손 관장님의 수중촬영은 취소되었다. 해양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당연한 조치였다. 대신 일행은 만들어진 현수막을 들고 관리소 옥상에 올랐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먼 곳으로 시선을 던졌으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서격렬비열도가 모두 보인다 하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물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제저녁 했던 일을 정확히 반대로 되풀이했다.

짐이 정리되고 모노레일이 부지런히 왕복했다. 선착장에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에 덩성덩성 자란 풀들과 주상절리며 팽이갈매기 떼를 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팽이갈매기의 수는 굉장했다. 독도를 근거지로 삼은 동족에 못지않은 수의 팽이갈매기 떼가 우리 주변을 선회하며 섬 근방의 황금어장에서 농어며 광어를 잔뜩 낚아 올릴 꿈을 꾸고 있었다.우리를 다시 물으로 데려갈 또 다른 갈매기, 갈매기호가 다가왔다. 함께 물으로 나가는 항로표지관리원 한 사람이 반갑게 웃으며 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새로 이곳에서 보름간 근무할 관리원이 그의 손을 잡고 건너왔다.

그새 정이 든 격렬이를 한참 쓰다듬고 배에 올랐다. 항로표지관리원 외에 상주하는 이가 없는 섬이니만큼 정기적인 여객선도 없는 섬. 편대비행을 하듯 서해 끝자락에 버티고 서서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격렬비열도를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동쪽 끝 독도처럼 관광객들이나마 많이 오가야 하지 않을까. 충청남도과 태안군에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니,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 각양각색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때까지 해무도 등대도 격렬이와 등대관리원들도 격렬비열도에서 모두 안녕하기를.



제 14호
보물

해양칼럼
Merzine Column



우리나라의 보물선과 수중고고학



허문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 그리고 보물이라는 단어는 황금을 가득 싣고 침몰한 보물선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 보물선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상상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나올 법 한 이런 모험을 실제 직업으로 삼은 이들이 있다. 바로 수중고고학자이다. 수중고고학자는 바다 아래 묻힌 보물, 대표적으로 난파선을 찾아 발굴하고 보호한다.

수중발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상 문화재 발굴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바다 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수중고고학자들은 잠수복과 호흡기를 착용하고 조금씩 해저면의 개흙을 벗겨 내면서 난파선을 조사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에서 찾아낸 배는 모두 14척으로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고려시대 선박 10척, 조선시대 선박 1척, 외국선박 2척이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가장 대표적인 보물선은 바로 신안선이다.

신안선은 1975년 신안군 증도 방축리 앞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청자꽃병이 올라오면서 존재가 알려졌고 이듬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에는 수중고고학자라고 할 만한 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수중조사는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진행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기에 신안선 수중발굴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1984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23,503점의 유물과 23ton의 동전, 고급 목재인 자단목 1,017점이 출수했고, 신안선을 인양했다. 유물의 대부분은 도자기로 20,660여점에 이른다. 저장 성(浙江省) 룡취안요(龍泉窯)의 청자, 장시 성(江西省) 징더전요(景德鎮窯)의 청백자와 백자, 지저우요(吉州窯)의 백지흑화(白地黑花)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금속, 석재, 유리제품 등이 발견되었고 후추, 계피, 정향(丁香)과 같은 향신료와 여지라는 과일의 씨 등 한약재도 발견됐다.

신안선은 해양실크로드를 항해하던 선박으로 1323년 원(元)나라 저장 성 Ningbo(寧波)항을 출발하여 일본 하카타(博多)항으로 향하던 중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것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청동추와 목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청동추에서는 원나라 시기 Ningbo항을 가리키는 '칭위안루(慶元路)'라는 명문이 확인되었고, '지치삼년(至治三年)'이 적힌 목간은 1323년 신안선이 마지막 항해를 떠났음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카타의 '조자쿠암(釣寂庵)', '하코자키궁(笥崎宮)', 교토(京都)의 '도호쿠사(東福寺)'가 적힌 목간을 통해 신안선의 목적지를 알 수 있었다.



보물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난파선으로는 2007년 발견된 태안선이 있다. 태안선은 어부의 통발에 걸려 올린 주꾸미가 고려청자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주꾸미가 건져 올린 고려청자는 바로 기사화 되었고 이를 접한 수중고고학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들은 곧바로 태안 해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층층이 쌓인 고려청자 더미를 발견했다. 이어진 발굴조사에서 25,000여점의 고려청자와 태안선을 인양했다. 청자들은 5층으로 쌓여있었고, 접시와 대접, 완 등이 많이 실려 있었다. 이 외에도 두꺼비모양 벼루, 사자모양 향로, 참외모양 주자도 발견되었다. 이 중 두꺼비모양 벼루는 보물 제1782호로 지정됐다. 이 고려청자들은 약 900년 전 1131년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당시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앞바다에 침몰한 것이다. 이 또한 청자와 같이 발견된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목간에는 신해(辛亥)라는 간지가 적혀있어 침몰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었고, 탐진현(耽津縣, 지금의 강진)에서 개경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한다면 단연 마도해역을 들 수 있다. 마도해역은 태안선이 발견된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도해역이 처음 발견된 것은 태안선 발굴이 한창이던 2007년 유물을 발견한 어민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몇 차례 탐사가 있었고 2009년 본격적인 조사에서 마도1, 2, 3호선이라는 3척의 고려시대 선박을 발견했다. 이 후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4년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이 발견되어 2015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선박이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곳이 과거 난행량(難行梁)으로 불릴 정도로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항해가 어렵다는 뜻의 '난행'이란 이름을 싫어한 사람들은 이곳을 안흥량(安興梁)으로 고쳐 불렀을 정도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4척의 선박들도 목간을 통해서 항해시기,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 수 있었다. 마도1호선은 1208년 전라도 나주와 장흥, 해남 등지에서 실은 곡물과 청자 등을 싣고 개경을 향하던 선박이었으며, 마도2호선은 1213년 이전 전라도 고창, 정읍에서 실은 곡물과 화물을 개경으로 옮기던 선박이었다. 특히 마도2호선에는 청자매병 2점이 목간과 함께 발견됐는데, 이 목간을 통해 매병을 고려시대 사람들은 준(樽)이라 불렀고, 꿀과 참기름을 담은 용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매병 2점은 각각 보물 제1783호와 보물 제1784호로 지정되었다. 마도3호선은 1265년~1268년 사이 전라도 여수에서 곡물과 전복, 홍합 등을 싣고 당시 수도였던 강화도로 향하던 선박이었다. 마지막으로 마도4호선은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전라도 나주에서 광흥창(지금의 마포)으로 향하던 선박이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은 이렇게 다양하고 진귀한 유물을 가득 싣고 항해도중 침몰한 난파선을 찾아내면서 성장했다. 지금도 우리나라 바다에는 많은 보물선들이 잠들어있고 수중고고학자들은 이를 찾고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바다 아래를 돌아다니고 있다. 아직 수중고고학 분야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중고고학자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물선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어릴 적 꿈을 간직한 이들이 수중고고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양칼럼
Merzine Column



안녕과 만선의 기원이 담긴 풍어제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

부산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인 삼포지향(三抱之鄉)의 고장이다.

여기에 리아스식 해안선까지 발달해 있어 곳곳에 포구가 자리한다. 550리 자연해안을 따라 바다를 생업터전으로 살아온 우리네 어민들의 모습은 부산의 명소 팔경 속에 그대로 담겨있다.

먼저 해운팔경 중 오륙귀범(五六歸帆)은 오륙도 저 멀리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만선의 돛단배가 해운대 미포항으로 돌아오는 전경이고, 사상팔경 가운데 원포귀범(遠浦歸帆)은 이른 새벽 감전나루터를 떠난 고깃배가 역시 만선의 흰 돛을 달고 포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영팔경에는 진두어화(津頭漁火)란 말도 있다. 수영나루터 인근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배에서 흘러나오는 어른거리는 불빛을 말한다. 이처럼 부산은 어민들의 삶이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풍요로움을 더한다.





부산은 예부터 대구와 청어가 많이 잡히는 고장으로 유명했다.

대구는 가덕도와 거제도 인근이 주어장이었고, 청어는 부산내항이 그들의 놀이터였다. 여기에 남항과 태종대 앞바다에서는 오징어와 갈치가 득실거리고 멸치는 다대포와 수영강 하구 쪽엔 더욱 많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어종의 생태계 먹이사슬로 인해 상어와 고래까지도 부산 앞바다에 자주 얼굴을 내밀곤 했다. 특히 수영강 하구의 멸치 떼를 따라 갈매기가 줄지어 날아들고 어부들의 멸치 후리는 소리가 수영만을 가득 메우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처럼 부산 앞바다는 황금어장이었기에 순풍을 따라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만선에 돛을 달고 귀항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삶의 존속을 위해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배를 부리고 어로작업을 하다 보면 어디 사고인들 나지 않으랴! 그러다 보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풍어를 희구하는 것 못지않게 무사안전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풍어제는 이러한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제의(祭儀)다. 부산지방의 풍어제는 동해안별신굿이 모체다.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어촌에서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제를 지내왔다. 아직도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부산의 기장, 대대포, 가덕도, 청사포, 영도 등지에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풍어제가 맥을 잇고 있다.

그 가운데 청사포 풍어제는 애절한 전설과 함께 시작된다.

청사포 마을 한가운데는 수령이 400년이 넘는 망부송(望夫松) 한 그루가 마을의 수호 신처럼 서 있다.

아득한 날 이곳 청사포에는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바다로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는 혹시나 하고 날이면 날마다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애 타게 남편을 기다렸다. 이미 저승으로 간 남편은 용궁에서 아내가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사연을 전해 들은 용왕은 부인을 용궁으로 데려오게 했다는 것이다. 뒤에 아내가 숨진 자리에서 한그루 소나무가 돌아났고, 마을주민들은 그 곁에 제당을 지어 부인의 명복을 빌게 된 것이 오늘날 풍어제의 기원이 되었다.

풍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 용왕인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장 죽성리 두호마을 뒷산 언덕배기에는 아름답리 해송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섯 그루의 나무가 마치 한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제당을 둘러싸고 있다. 국수당이란 이름에서 풍기듯 뭔가 범상치 않은 당산나무와 같은 기운이 감돈다. 지난 1996년 정월대보름부터 두호마을주민들은 마을 주신과 같은 이곳에서 별신굿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도 하리항의 만선풍어제다. 대개 풍어제는 정초에 지내지만, 이곳은 삼월 삼짇날 무렵이다.

1960년대 중반 동삼동어촌계 소속의 해녀와 어부들에 의해 시작이 되어 매년 하리항에서 대동 의례로 열린다. 규모와 열기로 보면 장엄한 바다 문화행사로 승화된 풍어제의 하나임 틀림없다.

인간의 소원이 어디 바다에만 있으랴. 올 한해 모든 이들이 만선(滿船)같은 가득찬 삶을 이어나가길 기원한다.



제 16호
물, 출렁이다.

해양칼럼
Merzine Column





이제는 물도 복지다

이은지 / 중앙일보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났지만 일자리, 주거, 의료 등에 집중돼 있고 물 복지 향상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많지 않다. 늘 상공에 존재하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에서야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물(3월 22일)의 날을 맞아 물 복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 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따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6.4%로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2.7%로 특별시·광역시 보급률(99.6%)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다. 2007년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은 인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 의학의 업적 1위로 '상하수도 발전'을 꼽았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사라진 이유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세기 말 조선 전역에 콜레라가 창궐해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

이후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908년 최초의 현대식 상수도 시설인 뚝도 정수장(現 뚝도 아리수 정수 센터)이 설치됐다. 경제가 급성장한 1980년대에 상수도 보급이 급속도로 이뤄졌고 1990년부터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넘어섰다. 문제는 상수도를 설치한 지 오래된 곳이 많아지면서 정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정수장 486개소 중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관을 사용하고 있다. 또 상수관이 녹슬면서 수돗물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새는 물로 인해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가 야기되고, 가뭄 발생 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현재 팔당호 3개 분량의 물이 낡은 상수관을 통해 사라지고 있다. 녹물과 냄새로 인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국민은 5%에 불과하다. 미국 56%, 일본 52% 등 다른 나라들의 수돗물 음용률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향후 12년간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더디기만 하다. 특히 오존 처리, 활성탄 여과, 막 여과 등 최신 정수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장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을 이롭게 하는 물 복지 시대로 향하는 첫걸음인 만큼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Nature for Water’(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로 자연과 물의 상생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물이 나온다는 진리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국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평균 물 사용량은 282ℓ로 독일 150ℓ, 덴마크 188ℓ에 비해 2배로 많다. 우리나라 물 낭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물 절약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설거지할 때나 채소, 과일 등을 씻을 때는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고, 양치질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 행구고, 손에 비누칠할 때 수도꼭지를 잠가준다. 또 샤워할 때 1분 동안 12ℓ의 물이 소모된다고 하니 샤워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도 물 절약에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져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세계 물의 날이 제정된 만큼 3월에는 물의 소중함을 한 번씩 되새겨보길 바란다.



해양유물

아라미니호

수산업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민의 꿈

조선의 심과 영토

"세계의 寶物"이 된 "우리의 寶物"

도시어부, 풍어를 기원하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바다

Merzine Relic Story

ॐ नमो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ॐ नमो

제 11호
찬란한 도전

해양유물
Merzine Relic Story

윤정은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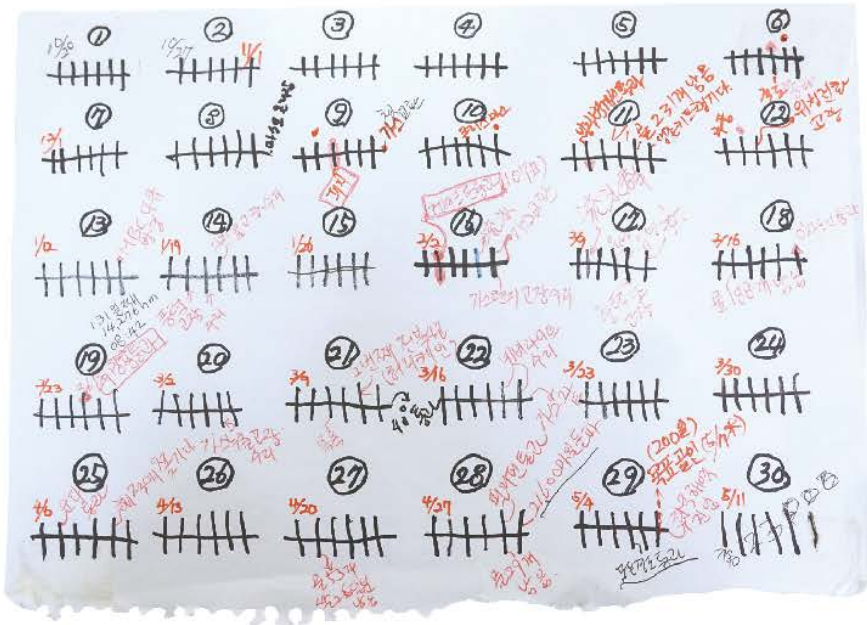


아라파니호

아라파니호는 2010년 김승진 선장이 크로아티아에서 구입한 요트로, 아라파니는 ‘바다’의 순우리말인 ‘아라’와 ‘달팽이’의 옛말인 ‘파니’를 조합한 바다달팽이라는 뜻이다. 김승진 선장은 무동력으로 항해할 생각으로 “바다를 다니는 달 것 가운데 가장 느린 요트이지만 지구상 모든 바다를 함께 누비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김승진 선장과 지구의 한바퀴 반(약 6만km)을 항해한 이 요트는 길이가 13m, 폭은 3.9m, 무게 약 9t으로 자그마하다. 이 작은 요트 아라파니호를 타고 김승진 선장은 2014년 10월 충남 당진 왜목항을 출발하여 단독·무기항·무원조로 210일간 41,900km를 세계 일주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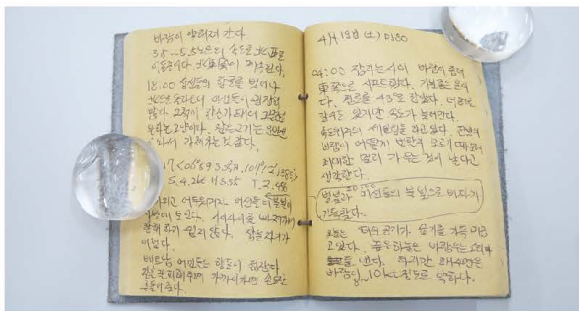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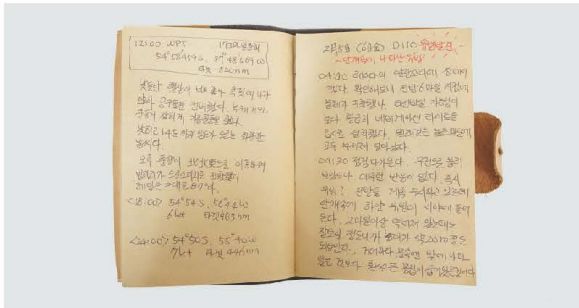
세계 일주를 한 아라파니호의 내부를 살펴보면 3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 중앙에 부엌 겸 거실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부엌 겸 거실의 벽면에는 항해 메모와 행운의 2달러가 붙어 있으며, 색종이로 접은 천사가 벽시계 위에 있다.

항해일마다 선을 그어 일주일 단위로 표시한 항해 메모에는 가스 교환 시기와 남은 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으며, 항해 위치와 일어난 사건들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부엌에는 가스 렌지, 밥솥, 냄비 등 조리기구와 식기, 새싹채소 씨앗과 밀가루 등의 식료품이 있다. 김승진 선장은 항해 중 물고기를 잡아 요리하기도 하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새싹채소 씨앗을 길러 먹었으며, 배가 흔들리다 보니 유리그릇 대신 손잡이가 있는 양은냄비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항해 중 입었던 옷, 잠수복, 침낭, 낚시대, 공구, 쌍안경, 비상약품 등의 다양한 물건들과 김승진 선장이 기록한 3권의 항해일지와 해도를 볼 수 있다.





매일의 일상이 빼곡하게 기록된 항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월 5일

유빙발견 ~ 안개속에 나타난 유빙

4:30 점점 다가온다. 무전으로 불러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혹시 유빙?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안개속에 하얀 유빙이 시야에 들어온다. 2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잘 보일 정도니까 높이가 약 20m정도 되 보인다. 거대하다. 물속엔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몸집이 숨어 있을 것이다.

4월 18일

20:00 별빛과 어선들의 불빛으로 바다가 가득했다.

- * 마일은 노티컬 마일(nautical mile)을 뜻한다. 1노티컬 마일은 1해리이다. 1해리는 1.852km이며, 2해리는 3.704km이다.
- * 항해일지 내용은 수정없이 원문 그대로 실었다.

항해일지를 통해 김승진 선장이 세계 일주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위험한 순간들과 풍경들을 느낄 수 있으며, 아라파니호와 함께한 위대한 도전정신을 만날 수 있다. 아라파니호는 현재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국립해양박물관 야외전시장 해오름 마당에 전시되어 있다. 김승진 선장의 항해일지와 항해 기록이 표시된 해도, 항해에 사용된 물품들은 5월 31일 바다의 날 기획전 『찬란한 도전』에서 만날 수 있다.



제 12호
만선(滿船)

해양유물
Merzine Relic Story

김효영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수산업의 어민과 내일의 꿈 그리고 어민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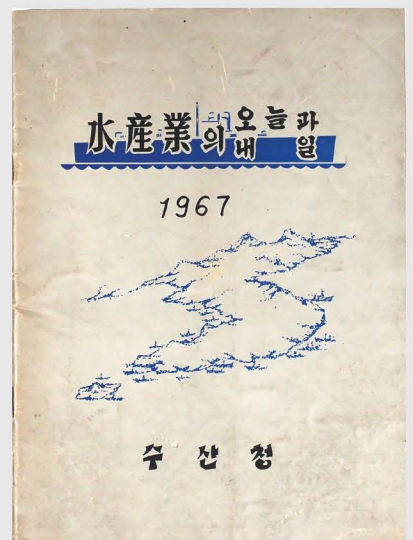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고등어 김치찌개... 우리 밥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는 생선이 있을까요. 고등어 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 잡히는 참치, 명태, 오징어, 꽂치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생선입니다. 또 미역 등 해조류와 가공된 김, 참치캔 등... 이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6년에 농림부 산하의 수산국이 수산청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인 1967년에 수산청이 발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신설된 수산청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책은 수산청이 ‘어민에게 드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어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앞으로 제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서 있습니다. 수산청은 어민을 위한 수산청이 되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수산을 우리가 이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어민이 되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민 여러분의 분발과 건투를 빕니다.”

어민에게 수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어민에게 수산업이 나라에서 중요한 분야임을 설명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수산분야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산업의 위치를 설명한 글 중 ‘라’를 보면 어민에게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라. 우리나라 국민의 고기류(동물성 단백질) 총공급량 74,000톤 중 절반이상(55%)을 수산물로 충당하고 있다.”



‘수산업의 오늘과 내일’표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수산업의 위치]

수산청은 제1차5개년계획에서 근대화 성과를 이루어냈으니 제2차5개년계획을 통해 어민소득을 2배 이상으로 올린다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민/어업 생산고, 어선건조사업,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등 여러 분야의 발전 모습을 소개합니다.



[수산업의 발전상]

수산업의 여러 목표 중에는 '원양어업'이 있습니다. 1957년 원양어선 1호인 지남호가 참치조업을 시작한 이래 1960년대는 원양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는 원양어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삽화에서 1962년 2척 뿐이던 원양어선이 1966년 138척이 운행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2배 이상인 333척이 운행하게 될 것이라는 즐거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발전상 중 원양어업 부분]

우리는 『수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 경제성장이 한창인 1967년 해양수산업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소득증대라는 꿈에 어떤 어민은 만전을 기대하며 바다를 향해하고 또 다른 어민은 수산물을 기르고 가공하며 바다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의 꿈은 지금도 우리 식탁을 책임져오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원양어업 60주년을 기념하여 「먼 바다, 만선의 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의 오늘과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 13호
그 섬에 가고 싶다.

해양유물
Merzine Relic Story

박선영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영토 조선의 섬과

라페루즈가 본 조선에 대한 기록은 1787년 5월 21일 켈패르(Quelpaert; 당시 외국에 알려진 제주도 지명)섬을 관측한 날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켈패르섬은 '외국인과의 모든 소통이 금지된 민족의 땅'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1653년에 네덜란드의 헨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포로생활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라페루즈는 조선에 상륙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한다. 라페루즈는 조선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해도를 그려 나갔으며 당시 해안에서 생활하던 조선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라페루즈의 부술호와 이스트롤라브호를 보고 경계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동해를 북상하던 1787년 5월 27일, 라페루즈는 지도에 없던 새로운 섬을 발견한다.

나는 동쪽에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곧 북북동 방향으로 어느 해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섬이 하나 보였다. 조선 해안에서 약 20리의 정도 떨어진 섬이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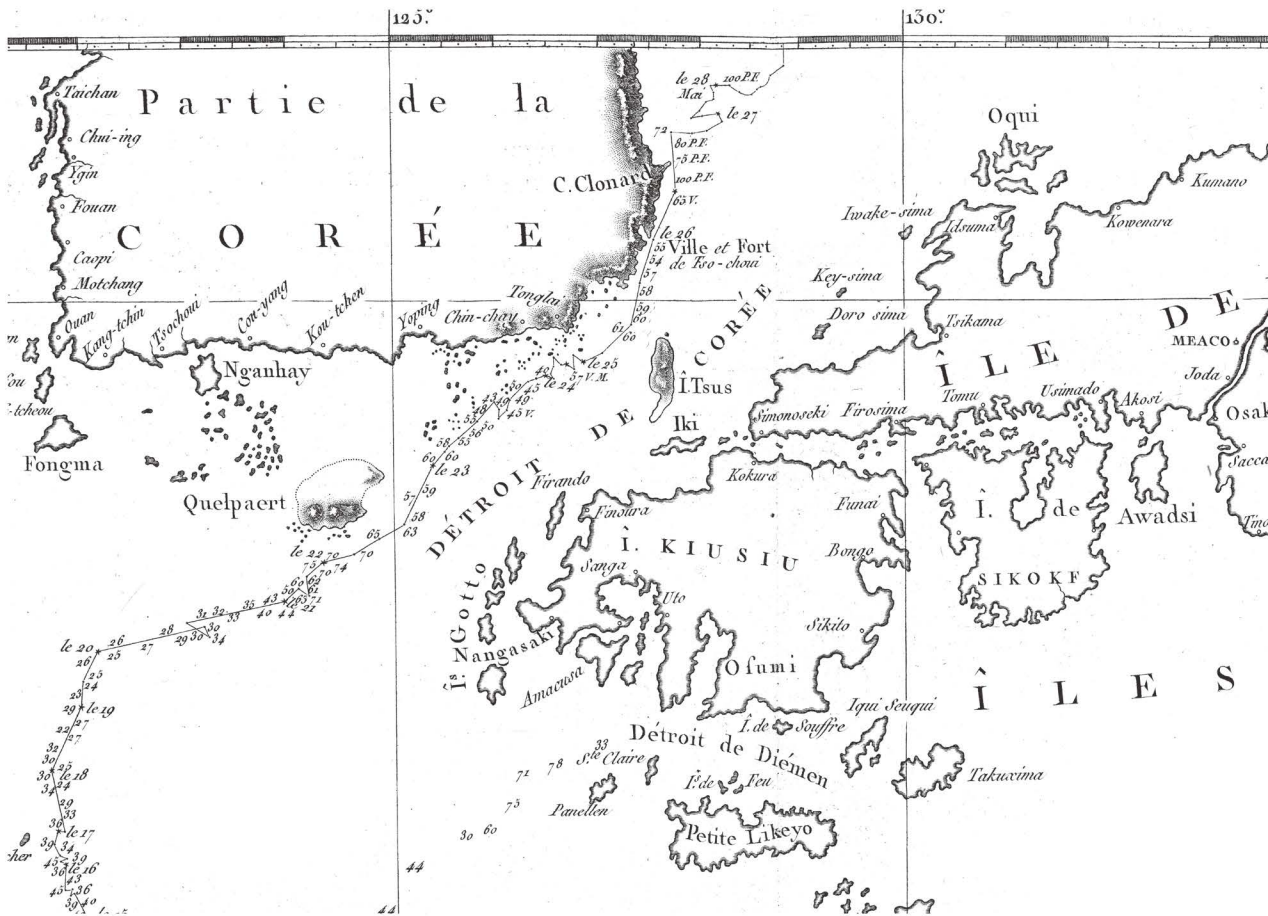
나는 동이 틀 무렵 섬을 관측하기 위해 다가갔다. 가장 먼저 이 곳을 발견한 우리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나는 이 섬을 다즐레(Dagelet; 울릉도를 지칭함) 섬이라고 명명했다.

사실 라페루즈 이전의 지도들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Fanling-tao'와 'Tchiang-chan-tao'라는 중국식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지도에는 육지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어려웠고 자국의 섬을 본토에 가깝게 그렸기 때문에 라페루즈가 실제 울릉도를 발견했던 위치와 기존 지도의 울릉도 위치는 상당히 거리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라페루즈는 지도에 없던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페루즈는 다즐레섬을 일주하며 돌레, 수심, 위도와 경도를 측정한다. 항해기에는 섬의 경관과 함께 섬에 머무르는 조선 목수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다즐레 섬에서 겨우 20리의 떨어진 육지에 사는 조선 목수들로, 여름이면 섬에 식량을 가지고 와서 배를 건조한 후 본토에 가져다 판매하는 것 같았다.

당시 다즐레섬에 조선의 목수들이 상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라페루즈의 기록에 따르면 철마다 오가며 생활 하던 터전이었다. 그리고 유럽인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며, 그 울릉도가 있는 동해는 조선의 영해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페루즈 탐험대는 1787년 조선을 지난 후 타타르 해협을 지난다. 이후 1788년 사모이를 향하던 중 라페루즈가 실종되면서 3년간의 항해는 종료되었다. 라페루즈는 세계일주를 끝내지 못했지만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아시아, 호주 등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정확하게 실측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최초로 서양지도에 정확한 좌표로 울릉도가 기록되었으며 울릉도에 거주 하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제 14호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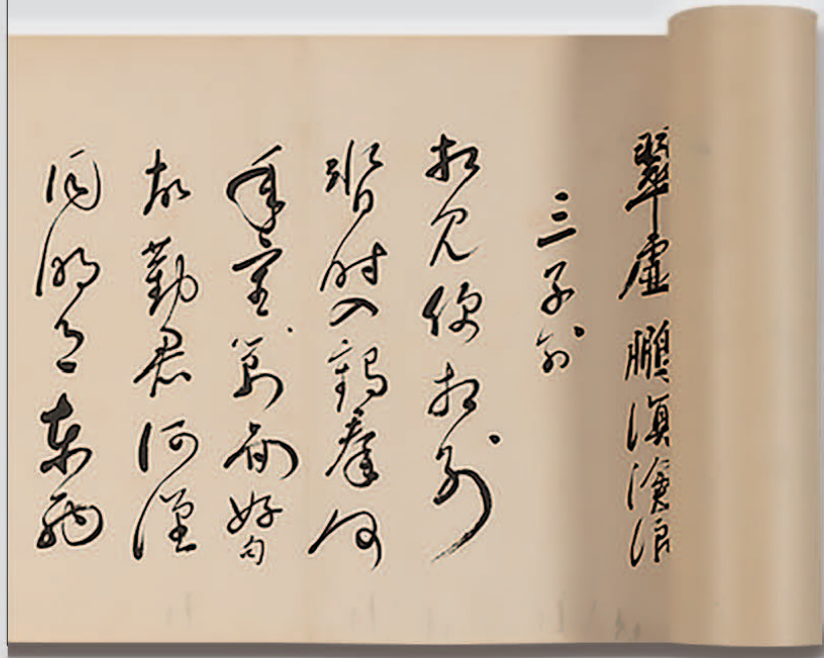
해암유물

Merzine Relic Story

김윤아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세계의 우리의 寶物 寶物 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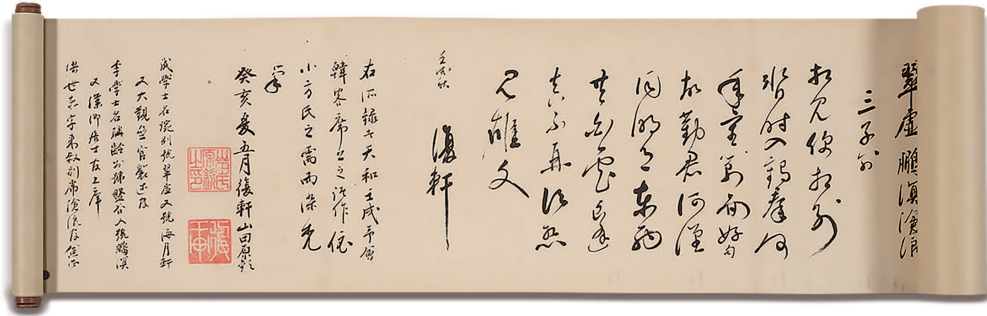
작년 2016년 3월 30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한일 공동 등재위원회는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라는 안건명으로 유네스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일 공동 등재위원회는 자료의 공동등재를 위해 ‘조선통신사가 추구한 평화 교류의 의의를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을 결의하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 10월24일~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일 양국 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선정하며, 세계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까지 세계기록유산은 107개국 1대륙 4국제기구의 348건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등재유물은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 실록(1997), 난중일기(2013),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2015)과 한국의 유교책판(2015) 등 13건이 등재되었다.

등재신청 자료들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일 외교 교류의 기록으로 양국 총 111건 333점 중 한국 측 자료는 9개 기관 63건 124점이 선정되었고, 이 중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자료 4점이 포함되었다.



통신사 수창시

우리관의 자료는 조선통신사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다.

1682년(숙종8)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인이 주고받은 시를 전사한 「수창시(酬唱詩)」와 1811년(순조11) 일본인학자 야마다 켄킨과 통신사 부사 이면구(1757~1818) 등과의 이별의 정을 시문으로 나눈 「봉별시고(奉別詩稿)」, 통신사 사자관 동강 피중정(東岡 皮宗鼎)이 쓴 「시고(詩稿)」, 수행화원 신원 이의양(信園 李義陽)의 「화조도(花鳥圖)」가 그것이다.

과거 통신사의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일본 각지의 유학자들이 찾아와 시문 수창과 필담을 나누며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자료는 이렇게 만남과 이별을 아쉬워하며 주고 받았던 봉별시, 서로의 시에 차운한 증답시, 그림에 남긴 화찬 등의 자료로서 일본의 에도시기 유학을 꽃피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통신사와의 교류와 그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의양의 도화소조도



조선통신사 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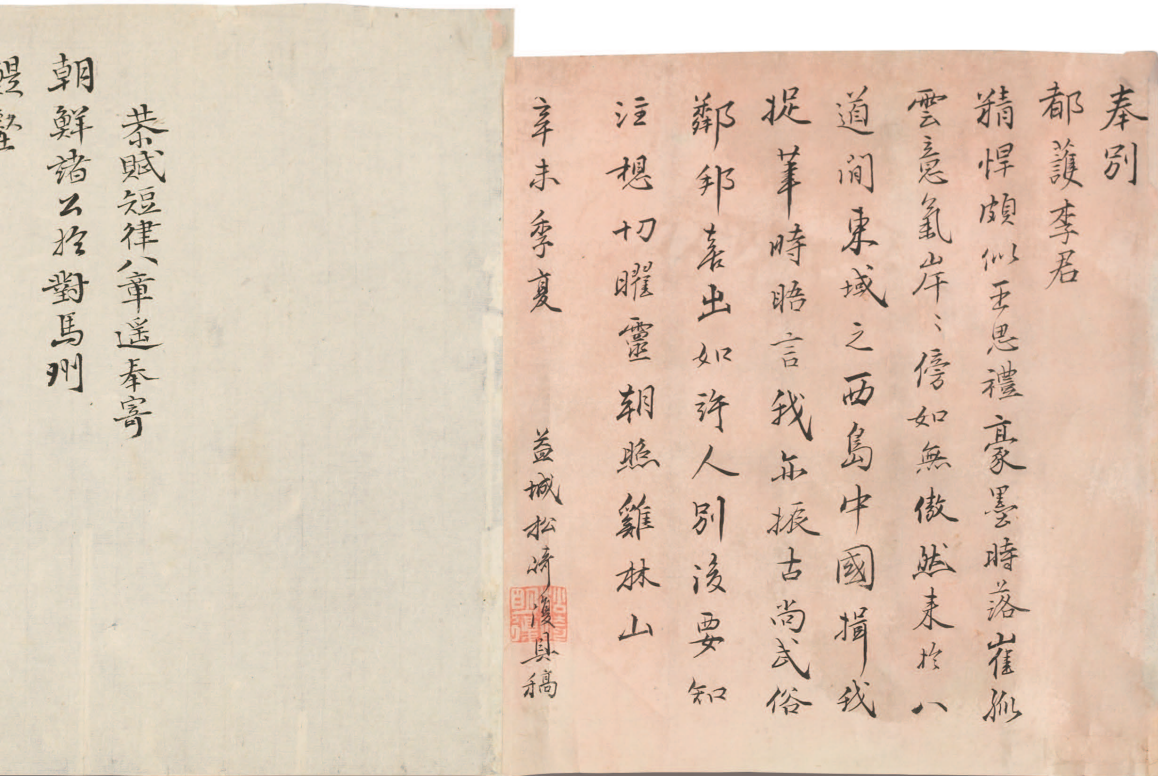
작년 2016년 4월 20일간 우리관에서는“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여 부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테마전을 개최하였다. 전시에는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 포함된 시화 등의 자료와 통신사선(通信使船) 회화 자료, 한지인형으로 재현한 조선통신사 행렬 364점이 전시되었다.

전시회를 개최했던 기원대로 우리 박물관에서 수집하여 보존해 오던 통신사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 등재되었다. 전시회의 제목대로 “우리만의 보물”이었던 통신사 자료가 이제 세계인이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의 보물”이 된 것이다.

晴洲不計程直航滄海駕奔鯨雪鬣春
半辭長白月嶠天邊指有明示我龍
泉光射斗贈
君魚眼價連城壯遊何翅浮相興珠域
還應留盛名
百川振古此朝宗
文鷁何迷大海東脩好應日兄弟國
殊方未必馬牛風聊採木李要瓊玖
將以甘棠剛角弓交分自今飛夢在
敢云音信若為通
不比乘槎犯斗牛
仙軺翻向日邊留
雞林夜月索鄉夢馬島春風入宮柱觀
鳳人誰可勝喜奎龍我獨奈多田且
將詞筆煩酬和編紉愧非東里侍
紗選須知寸不羣遠遊章賦興氣氤
雀浦湖連鰐浦濤文星影益便星分
二國風流欽此會千秋交契託斯文為
謝海東亭所有櫻花聊贈一枝雲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하여 해양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결코 길지않은 시간이었지만 2010년부터 차곡차곡 수집해 온 해양 자료들이 박물관 전시실에서 관람객과 만나고,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그 가치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문화재 자료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하나둘씩 그 가치를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선보이는 “해양 명품 100選, 바다를 품다”에서는 통신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수집한 자료 중 엄선한 대표유물을 선보인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해양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귀중한 유물을 하나하나 수집한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유서깊은 항해도구, 동해와 독도가 표기된 서양의 고지도, 우리의 바다를 지켜온 수군 자료들과 해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품들이 선별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유네스코 기록물로 선정된 통신사 관련 자료 외에도 우리 해양문화의 귀한 보물로 지키고 간직할 많은 유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통신사 봉별시고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양유물
Merzine Relic Story

김소형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도시어부 기원하다 풍어제를

2012년 가을로 접어들 무렵, 우리박물관 사람들은 영도 “하리의 어부”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사진촬영을 한 박승근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도시 속 어촌마을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성과물인 슬라이드 필름 938장을 우리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진은 2003~2004년에 촬영된 것들로 햇수로 1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자료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 어부들의 삶을 포착한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해양역사문화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야 하는 우리박물관은 박승근 작가로부터 이 소중한 기록을 모두 기증받아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동삼동 어촌 사진 슬라이드 (박승근 기증)

변화하는 어촌마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기록에는 어부가 조업하는 모습이나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 선창에 펼쳐진 좌판 등과 같이 도시 어부들의 생생한 일상을 알 수 있는 사진과 더불어 마을의 가장 큰 공동체 행사인 풍어제를 지내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36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조업 나가는 어부



② 물질하는 해녀



③ 선창에 펼쳐진 작판



④ 동삼풍어제

동삼동 어촌 사진 슬라이드 (박승근 기증)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에 대한 어촌의 관심은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풍어제입니다. 풍어제는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올리는 어촌마을의 공동제의입니다. 박승근 작가가 슬라이드 필름 속에 담아낸 풍어제는 매년 음력 3월 초에 하리의 선착장에서 하루 동안 굿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풍어제에서는 수많은 굿거리들이 연행되는데, 이 중에는 어촌의 직접적인 생업과 관련된 신, 즉 용왕신을 모시는 용왕굿도 있습니다.

용왕굿은 용왕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용왕굿을 연행하는 무녀의 무가 중 “사해팔방의 용왕님네를 모신다. 육당의 자손은 성황님을 믿고 다니고, 만경창파(萬頃蒼波)* 에 다니는 자손은 용왕님을 믿고 다닌다.” 라는 내용은 용왕굿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용왕굿이 최고조에 다다르면 무녀는 ‘용왕굿 명단’에 적혀져 있는 이름을 차례차례로 부르고, 호명에 따라 굿당에 들어온 이가 제단에 예를 올리면 무녀는 소지(燒紙)* 한 장을 올려줍니다. 예를 올리고 제주(祭主)의 안주인으로부터 용왕밥*과 마른 명태 한 마리, 막걸리 1병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선착장으로 나가 용왕님께 자신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만경창파(萬頃蒼波)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의미한다.

소지(燒紙)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용왕밥

한지에 쌀을 조금 싸서 마른 명태와 함께 용왕에게 헌식(獻食)하기 위해 바다에 던지는 쌀이다. 쌀 대신 밥으로 용왕밥을 만들기도 한다.



용왕굿 명단에 적혀있는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무녀(2013년 제50회 동삼풍어제)

우리박물관은 2013년에 제 50회를 맞이한 동삼풍어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삼어촌계로부터 기증받은 '용왕굿 명단'을 우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3년 동삼풍어제에서 사용된 '용왕굿 명단'에는 10장의 한지를 이어 붙여 만든 두리마리 형태의 종이에 160여 명의 이름이 또박또박 정자로 쓰여 있습니다. 명단에는 선주와 그의 배이름, 양식업자, 해녀 등 어업 관련 종사자의 이름들이 가나다순으로 적혀있습니다.



용왕굿 명단, 1,400.6 X 38.5cm
(동삼어촌계 기증)

동삼어촌계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동삼풍어제는 1962년에 시작되어 올해 제55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삼풍어제는 어촌계원들에게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염원하는 제의이자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의로 구성원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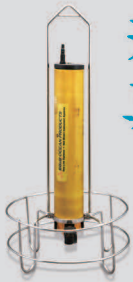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풍어제 전승이 중단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요즘,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동삼풍어제는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부들의 소망을 기원하는 동삼풍어제가 우리박물관에서 영원히 보관되어 후세에 전승될 자료들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 16호
물, 출렁이다.

해양유물
Merzine Relic Story

진성남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바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 /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증 / 지름 49.1 × 높이 110.5 cm

바다는 항상 파란 꿈을 꾸다. 파란 꿈을 지키는 바다의 힘 그 기저에 무한한 자정 작용이 있다. 바다는 이 자정 능력으로 자신 뿐 만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를 지켜 나간다. 국립해양박물관 4층 상설전시실 해양과학코너에 가면, 바다가 가진 자정 작용의 비밀을 말해주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Recorder)는 해양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전기전도도(염분으로 환산), 수온, 수심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이다.

그 외에 감지기를 추가로 부착하여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수온은 해수의 온도를 뜻하며, 염분은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의 농도를 뜻한다. 수온과 염분은 해수의 순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수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기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온과 염분은 해양 생태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수심수온염분기록계를 통한 정밀한 측정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유속계는 말 그대로 해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라 할 수 있다. 유속계는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 초기 모델은 “해류병”을 이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는 홍민재님으로부터 기증 받은 해류병 습득 보고용 엽서가 보관되어 있다.

해류병 습득 보고용 엽서는 ‘해류병’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습득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해류병에 넣어둔 종이이다. 엽서의 앞면에는 수취인과 수취인의 주소 등이 기입되어 있고, 뒷면에는 해류병습득보고 양식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습득월일·습득장소·습득자주소성명·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 자료에 실제 기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취인은 부산목노도(釜山牧ノ島: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의 명칭)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으로 되어있고, 뒷면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소화12년(1937년) 8월에 투하되어 5개월 후인 12월 9일에 일본 혼슈 중북부의 니가타현(新潟縣: 신사현)에서 습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부산과 일본 사이 해류의 궤적을 조사했다. 해류병을 이용한 방법은 190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된 것으로 낭만적인 방법이지만, 정확도면에서 현재의 기기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후로 유속계는 발전을 거듭하여 전자해류계(GEK: Geomagnetic Electro-Kinetograph), 자기유속계, 음향도플러 유속계, 인공위성 추적부이 등의 장비로 해류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다.



海流瓶拾得報告 (報告 No. 50)

[水試] (昭和 12 年 12 月) 對馬航路

(投入点) 第 2 回 観測 (番 號) 第 30 號

拾得月日	Date & time found.
昭和 12 年 12 月 9 日 午後 4 時	
拾得場所	Locality found. 海岸ならは道郡面里又は縣郡町村. 海上ならは何れ何地方沖合何裡又は緯緯度
	新潟縣新潟市榮母寺小学校裏浜 海 4 米位
拾得者住所氏名	Name & address of finder.
	新潟縣新潟市赤坂町三丁目 納屋 亮
参考事項	ビール瓶のフタが白く塗り一新の瓶に完全. 瓶中の砂が丸いものを葉巻の煙草の砂が混じっていた。 ビール瓶の外には何も書いておらず。 11 月中大最度 12 月 7 日迄水試が此のシに打上げられた。

この瓶は海流を測るために流したものです。拾つた方は上記の相當欄へその日時・場所・住所・氏名をハツキリと記入し郵便に出して下さい。(切り取り線から切りはなして要書の部分だけを切手なして出して下さい。)

해류병 습득 보고용 엽서
홍민재 기증 / 가로 8.6 × 세로 14.3 cm



음향도플러 유속계(ADCP)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증
지름 23.0 × 높이 17.5 cm

음향도플러 유속계(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는 음파를 발사해 각 수심에서 해류와 함께 움직이는 부유물로부터 반사되는 음파를 이용하여 해류를 관측하는 기기이다. 해양의 한 장소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선박에 부착시켜 운항 중에 관측할 수도 있다. 선박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넓은 범위를 관측할 수 있고 연직 방향, 즉 해류방향의 수직 방향으로의 유속분포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에 의해 측정된 자료들은 바다 오염 혹은 지구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바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푸르름을 지켜내지만 때때로 바다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위적인 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태안 기름 유출사고'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정 작용을 보조하는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증받아 보관중인 유회수기가 그 중 하나이다. 유회수기(油回收機)는 해상 또는 해안에 유출



유회수기(흡착식) /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증 / 가로 155.0 × 세로 150.0 × 높이 80.0 cm



유흡착제(부직포)를 사용해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장면

된 기름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출유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장치로 물과 기름의 비중차를 이용하거나 기름의 점성을 이용하여 바닷속의 기름만 걸러낼 수 있는 기기이다. 유회수기의 처리능력은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약 35~150kl 정도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사고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도구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에 들고 나간 유흡착제(부직포)이다. 다수의 유회수기가 준비되었으나, 사고 해역이 파도가 높고 기름의 점도가 낮아 장치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바다를 오염시킨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자연이 거친 파도를 내보낸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현재, 우리 해양 조건에 적합한 국산기기가 속속 제작되고 있어서 유회수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기들의 발전과 비례해서 우리 바다가 인위적인 사고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측정기기들의 데이터들이 좀 더 축적된다면, 바다의 자정 능력을 우리들도 빌려 쓸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과 기대를 해본다.

해양전시

찬란한 도전

먼바다, 만선의 꿈

해녀, 육지로 가다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함수(鹹水), 소금이 되다.

Marine Exhibition Story



제 11호
찬란한 도전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찬란한 도전

백승주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바다는 오랫동안 도전의 대상이었다. 바다는 인류에게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도전의 의지를 갖게 했다. 선사시대에는 식량을 얻거나 이동하기 위해, 역사시대에는 교류·전쟁·무역 등을 위해, 그리고 현재는 산업과 레저를 위해 인류의 바다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에 대한 도전은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은 많은 이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국립해양박물관의 기획전시는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바다에

도전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전시를 통해 그들의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 도전의 가치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인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바다로 도전을 시작했을까? 인류는 식량을 찾기 위해, 침략자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교역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호기심 충족을 위해 수평선 너머로 이동하였다. 최초의 배는 물에 뜨는 통나무를 단순히 엮은 펴목의 형태였을 것이다. 거기에 노와 돛이 더해지면서 더 빠르고 멀리 다른



아우트리거 카누

해안으로 이동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돛의 재질은 나뭇잎에서 가죽, 직물로 바뀌며 발전하였고, 배의 형태도 카누나 구조선으로 바뀌고 점차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인류가 먼 바다에 도진한 최초의 역사는 폴리네시아인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수천 년간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부터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우트리거 카누(Outrigger Canoe)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우트리거 카누는 길고 좁은 카누의 선체 옆에 물에 뜨는 얇은 부재(浮材)가 붙어있으며, 삼각돛을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한다. 폴리네시아인은 이런 원시형태의 배로 타이완 일대에서 벗어나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뉴기니, 솔로몬 제도 일대에 정착하였고, 500년경에는 피지, 통가, 사모아 일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이주는 800년경 하와이를 거쳐 1200년경 뉴질랜드 정착까지 이어졌다. 살기 위해서 새로운 농경지가 필요했던 폴리네시아인들은 속을 파낸 통나무배에 의존하여 태평양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도전을 했다.



산티마리아호 모형

15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세계 탐험기가 책으로 발간되면서 사람들에게 동양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비한 동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며, 사람이 갈 수 없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디아스는 1488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희망봉을 지나 항해했으며, 스페인을 출발한 콜럼버스는 1492년에 뜻하지 않았던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이어 마젤란은 1519~1521년까지 빅토리아 호를 타고 세계일주 항해를 하였다. 대항해시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도 이어 가세한다.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제임스 쿡은 3차에 걸친 항해를 통해 북극과 오세아니아 대륙 등 전 세계를 항해하고 항해기를 남겼다. 대항해시대를 거치는 동안 선박은 많은 양의 상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더 크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강하게 발전하였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증기 기관,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범선 대신 동력선이 바다를 누렸으며, 배를 만드는 재질도 나무에서 철강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의 선박은 모든 바다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되었다. 해저 수천 미터 아래까지 탐사할 수 있는 로봇과 잠수함, 극지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전진할 수 있는 쇄빙선, 바다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트까지, 인류가 바다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김승진 선장은 한국인 최초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일주를 성공한 사람이다.

무기항, 무원조 세계일주란 요트로서 어느 항구도 정박하지 않으며, 항해 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일주로, 전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김승진 선장은 종교 요트에 바다 달팽이라는 의미의 '아라파니'호라는 이름을 짓고 2014년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을 떠나 지구 둘레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항해하였다. 왜목항을 출발하여 일본 남단을 통과하고 태평양 동남쪽을 횡단한 후 뉴질랜드 해역을 지나 남아메리카 케이프혼을 지났다. 이후에는 남극해 주변을 항해하고 케이프타운으로 들어가 인도양 중간쯤에서 북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라파니호



세계일주 중 김승진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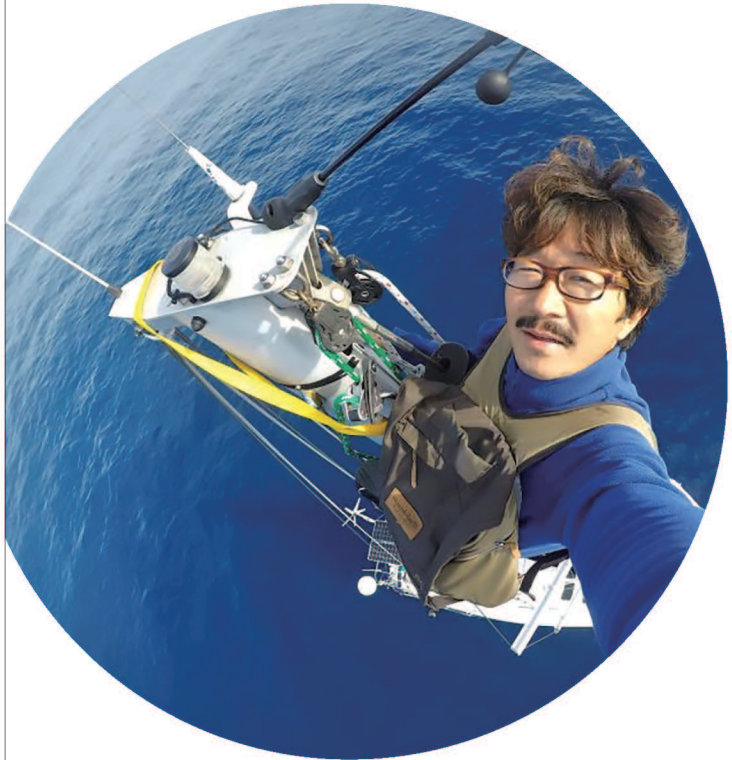
김승진 선장은 1998년 우연히 읽은 일본인의 요트 세계일주 항해기를 통해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한다. 다른 평범한 가장들처럼 김승진 선장에게도 가족과 직업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좋아 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승진 선장이 어려운 도전을 준비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김승진 선장이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남겨 놓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꿈임없이 도전을 갈구하던 사람이 있었다, 라고 기억되면 좋겠네요.”



마스트 수리 중인 김승진 선장

망망대해에 있으면 지구가 거대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지구(地球)’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행성은 ‘수구(水球)’다. 이 아름다운 물방울 위에 산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광대한 바다가 정말 시원하다. 이곳을 나 혼자 가고 있더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내가 정한 길을 따라 세계일주를 하고 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의 즐거움을 바다에서는 자주 느낀다.

누구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내가 폭풍과 싸우고 무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누구나처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항해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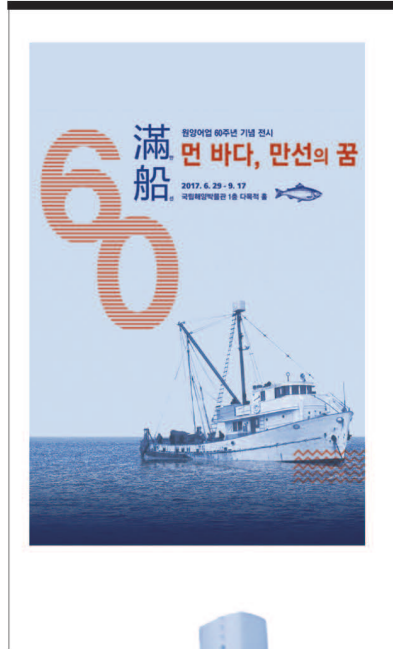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이 꿈꾸는 도전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기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노력해 보기를 기원한다.

먼바다, 만선의 꿈

권유리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제 12호
만선(滿船)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1957년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출항을 시작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원양어업 6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거친 바다를 헤치며 만선의 꿈을 향해 나아간 수많은 선원들의 노력은 원양어업 개척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와 함께한 원양어업의 발전상과 망망대해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 낸 우리 선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The Joy of Going off on the First Fishing

우리나라 원양 어업사에 영원히 기록될 제1호 원양어선인 지남호는 1946년 미국 정부가 시애틀 수산시험장의 연구를 위하여 중합시험선으로 건조한 선박 2척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선박의 선명은 "워싱턴호(SS Washington)"였고, 이 워싱턴호는 약 3년간 조사활동을 마친 뒤 한국 정부가 1949년 인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부를 건져 올리라"라는 의미로 이 선박을 "지남호(指南號)"라 하였습니다. 1951년 제동 산업이 이를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1957년 6월 29일 부산항을 출발한 지남호는 8월 15일 인도양에서 사람 키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남호 첫 출항식



지남호에서 잡은 새치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중인 이승만

Dream of Sailor

1960년대 원양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승선할 젊은 선원들이 필요했고, 정부 역시 선진국의 앞선 수산 기술 도입과 고용 창출을 위해 우수한 선원 양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제연합(UN)과 국제연합개발 계획 특별기금 사업(UNDP/SF) 기본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1965년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한국어업 기술 훈련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년 동안 총 9기로 운영되어 수료자 413명을 배출(78.1%)시켰으며 연장된

1972년까지 총 992명이 입소해 793명 (어로 423명, 기관 3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998년 1월에는

선원 재교육, 상선 선원 교육 전문기관이던 한국해 기연수원과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통합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이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Contribution of Overseas

Fishing Crew

그들의 희생을 돌아보다 Looking back on Sacrifice of them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들이

1970년대 말까지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로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1971년에는 원양어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먼 바다에서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 습

막히는 더위와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공로는 크게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양어업 조업 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을 안치한 해외 선원 묘지는 한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노력으로 333기 중 27기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재 8개국 305기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참치연습용 보호망 그물뜨기와 어구조립법 실습



고양에서 온 편지를 읽는 선원(원양어업계척사,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포부와
희망을 안고
용기와 끈기로 ”



훈련생의 입소 선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항운실습실에서 해도 실습을 하고 있는 훈련생(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관악산호에서 어군 유입을 위해 제낀기를 하는 모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기관의 정비 실습중인 훈련생(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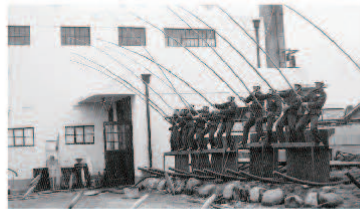


참치 연승을 보호망 그물뜨기 및 어구조립법 실습(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오전에는 항해와 관련된 이론을 배웠고 오후에는 어로 작업, 그물 제작, 연습작업 등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최신형 발전기와 기관으로 실습했고 항해에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를 활용해 항해하는 법을 익혔다.



이론 강의를 듣는 훈련생(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공)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제 13호
그 섬에 가고 싶다.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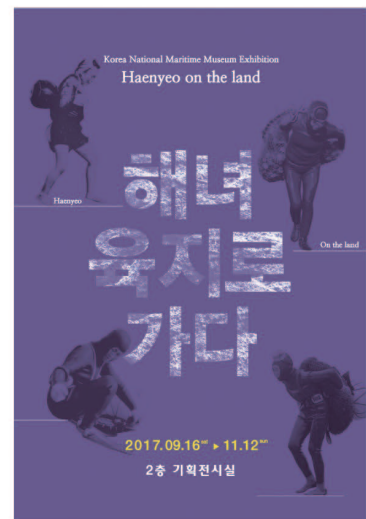
해녀, 육지로 가다

김진태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해녀는 아무런 기계장치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호흡으로만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잠녀(潛女) 또는 잠수(潛嫂)등으로 불리었으며, 주로 전복·소라와 같은 조개류와 미역·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채취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해녀 문화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녀 문화를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어업 유산으로 규정하고, 유엔 소속 식량농업기구 주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해녀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해녀, 육지로 가다』 테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녀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순력도』 병담병주, 1702년,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해녀물질모습 확대도

일반적으로 해녀(海女)는 몸에 아무런 기계적 장치 없이 바다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취 활동은 신석기시대 이후부터 확인되는 패총(조개더미) 유적으로 보아 이미 선사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잠녀의 물질에 대한 기록은 1629년 이건(李健, 1614~1662)의 「제주풍토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 후기의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탐라순력도』(1702)에는 잠녀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작업하기 편한 작업복을 입습니다. 전통적 해녀의 옷은 물소중이(하의)와 물적삼(상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의인 물소중이는 옆트임이 있어 입고 벗기가 편하며, 1930년경부터 상의인 저고리 형태의 물적삼을 입기 시작하여, 1960년대 이후 일반화 되었습니다.

해녀복을 입고 작업하는 모습



물소중이(하의)·물적삼(상의)





홍경자 해녀의 고무옷 세트

1970년대 초부터는 물소중이와 물적삼이 '고무옷'이라고 부르는 검은색 잠수복으로 점차 대체되었습니다. 고무옷은 보온성이 뛰어나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수확량의 증가 및 작업 환경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질도구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눈(물안경), 해녀가

물 위에 몸을 의지하거나 해엄처 이동할 때 사용하는 테왁과 해산물을 보관하는 망사리,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빗창, 성게·문어 등을 채취하는 용도인 호맹이, 해조류를 지를 때 사용하는 정계호미, 해안가 바위에 미역 포자가 쉽게 착상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풀이나 이끼를 제거하는 갯뉘이 도구 등이 있습니다.



물안경(좌:왕눈 우:쌍눈)



테왁망사리, 테왁 닻·조락



빗창



호맹이(골각지·까꾸리)



정계 호미(중계 호미)



갯뉘이 도구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은 일본 어민들의 조선 진출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어민 중 잠수기(潛水器)업자들이 제주도 바다 속 전복과 해삼 등을 마구 채취하면서 제주 해녀들의 수산물 채취는 커다란 타격을 입습니다. 마구잡이식 어획은 어장의 자원 고갈과 황폐화를 가져왔으며, 결국 제주 해녀들은 다른 지역으로 바깥 물질을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제주 해녀들의 바깥 물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육지의 모집자들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후 1960년대 마을 어촌계가 마을 앞 어장에 대한 우선적 면허권을 가지게 되면서 마을 주민이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제주

해녀들은 현지 남성과 혼인, 마을 주민화를 통해 마을 어장에 대한 정당한 어업권을 가지면서 정착해 나갔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의 약자로서,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하여 육성된 문화, 자연경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차세대에 보존·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창설된 제도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통적 어업 문화인 대한민국 해녀를 보존 가치가 있는 어업 유산으로 규정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전경



대한민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제2호 제주밭담 전경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권유리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제 14호
보물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무가지보(無價之寶),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번 전시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개관 이후
2만 2천여 점의 고귀한 유물을
수집해왔습니다.
모든 유물이 참으로 소중한 그
경중과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을 선별하여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해양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엄선된
명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부에서는 서양 항해의 시작과 관련된
해도첩, 지구의 천구의, 항해도구,
항해기 등을 소개합니다.
1646년 제작된 세계 최초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한 해도첩인
로버트 더들리의 '바다의 신비'를
비롯하여, 영국의 뉴턴 일가가
제작한 '지구의·천구의', 태양과
별의 위치를 알기 위해 사용된
'아스트롤라베', '녹터널', '나침반' 등
다양한 항해 도구를 공개합니다.





또한 조선을 탐험한 여러 항해기
중 라페루즈(La Pérouse),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 등
익숙한 탐험가들의 항해기들도
소개됩니다. 이들은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자료들이기도 하지만, 당시
서양 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의
초기 기록들과 조선에 대한 탐험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2부에서는 바다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의 옛자료를 살펴보려 합니다. 고지도와 통신사 관련 자료, 수군과 관련된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설명한 죽도제찰(竹島制札)과 함경도 해안지역의 지도첩, 충민공계초 등이 전시됩니다. 또한 수군조련도의 디지털아트 애니메이션은 보다 전시를 흥미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통신사 자료 4점(수창시酬唱詩, 봉별시고奉別詩稿, 시고詩稿, 통신사 화원으로 참여한 신원 이의양信園 李義養의 도화소조도 桃花小鳥圖)과 함께 통신사의 육,해로의 긴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10m가 넘는 귀로도중도歸路途中圖가 공개됩니다.



이의양의 도화소조도



조선통신사시고



한글전도



함경도
해안지도첩



나전이층농



쌍룡검과 투구

3부는 도자기와 나전공예, 서화 등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해양 유물을 구성하였습니다. 나전칠기로 장식한 나전이층농과 통영지도 나전장, 바다의 신, 용을 주제로 한 백자철화운용문항아리 등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 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 공개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명품을 통해 우리 해양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백자철화운용문항아리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권유리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2층 기획전시실에는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전시 전반에 대해 소개한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3부 “바다에서 이어진 문화와 예술”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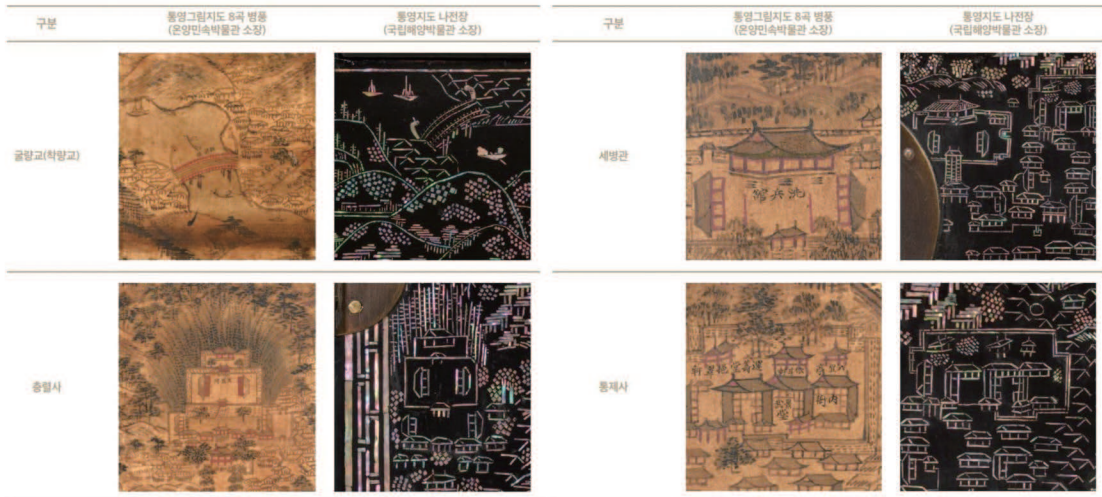
전통의 아름다움은 실용과 멋이 더해질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소장 자료를 통해 우리 전통의 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 목공예는 인위적이지 않은 가공, 즉, 자연스러운 나뭇결과 이상적인 비례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조개껍질로 빛은 나전과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대모(玳瑁)공예로 장식한 목가구는 화려함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목가구 중에 통영 지도 나전농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나전 문양은 산수문(山水紋)이나, 상징적인 문양(귀갑문, 박쥐문, 나비문 등)을 새기기 마련인데, 이 나전농에는 특이하게 통영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통영 지도 문양은 19세기에 제작된 '통영그림지도 8곡 병풍'(운양민속박물관 소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병풍의 층렬사 뒤에 그려진 대나무 숲, 세병관의 모습, 굴량교 양옆의 벽수, 다리 밑을 지나가는 배 한 척, 통제사 등을 나정문양에서 볼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흰 바탕에 선을 더하여 문양을 만든 도자기 역시 우리 조상들의 해학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백자철화운용문호는 2017년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항아리입니다.

백토 위에 두 마리의 용과 구름을 자유로운 모습으로 조합한 문양이 철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용의 얼굴에는 눈과 더듬이 형태의 갈기만 남아있고, 다리와 발톱이 생략되어 있으며, 비늘이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관요(官窯)가 아닌 민요(民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아리 입구에 철화로 점을 찍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예이며, 이 때문에 문화재자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이 끝나갈 때쯤 정면에서 5점의 향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아리들은 근대에 황해도 봉산과 해주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해주 향아리의 특징은 전면에 코발트와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물고기 문양과 국화 문양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고기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밤낮으로 재물을 지켜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해주향아리를 보시면, 크기도 다르지만, 모두 물고기들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자기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때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문구처럼, 멀찍이 서서 일상적인 것들을 담담하게 풀어 예술로 승화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함수(鹹水), 소금이 되다.

조민주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제 16호
물,출렁이다.

해양전시
Marine Exhibition Story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나트륨. 오래 전부터 인류는 나트륨 섭취를 위해 소금을 먹어왔습니다. 고대의 소금은 술과 더불어 국가가 전매(專賣)를 시행하거나 국가 간의 공물로 거래 될 정도로 값어치가 높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소금이 불길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믿어 주술적인 의미로도 사용해왔습니다.

제염(소금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닷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은 건조방식에 따라 자염(煮鹽)과 천일염(天日鹽)으로 나뉘집니다.

두 소금 모두 바닷물을 사용하지만 자염은 여러 차례 농축한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 만든 소금이며,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둬놓고 햇빛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또한 천일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전래된 소금 생산방식이며, 자염은 천일염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금 생산방식이었습니다.

올해 3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여러분들께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자염에 대한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자염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물이 빠진 갯벌에 씨래질을 하여 갯벌 흠을 잘게 부순다. 잘게 부순 흠(함토)은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하여 염분을 농축시킵니다. 이 흠을 다시 갯벌에 넓게 피거나 셋구덩이에 쌓은 후, 바닷물을 여과시켜 더욱 높은 염분의 함수(鹹水)를 만듭니다.

이렇게 얻은 함수를 가마에 끓여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자염입니다.

자염 생산은 갯벌 흠을 부수고 말려야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보단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에 마을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한 해의 소금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벗고사'라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셋구덩이와 씨래질하는 모습



가마에서 자염을 채취하는 모습





자염 생산에는 다양한 생산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소금가마를 설치하는 움막인 염벚의 소유주는 벚주(벚임자)로써 주로 마을의 부유층이었습니다. 벚주는 갯벌을 갈아엎는 일을 맡는 염한이[鹽漢]와 함수의 염도를 측정하는 간쟁이를 고용하여 대규모 염전을 경영하였으며, 염한이와 간쟁이에게 생산한 자염을 배분해주었습니다.

자염 생산에 쓰인 도구는 염전에서 함수를 끌어 올리는 무자위, 갯벌의 흩덩이를 부수거나 바닥을 관관하게 골라주는 씨레, 염전의 득이나 갯벌을 정비할 때 사용한 가래 등이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자염 생산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씨레

자염의 생산방식은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투를 셋등 위에 쌓은 다음 함수를 만드는 셋등방식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사용하며, 갯벌을 파낸 구덩이 안에 함투를 넣어 밀물을 이용해 함수를 만드는 셋구덩이 방식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사용합니다. 갯벌이 없는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그대로 끓여 만드는 해수직자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던 자염은 1950년대 천일염전의 활성화와 자염 생산자들이 노동이 수월한 천일염전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점점 그 명맥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자염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안반도 지역에서는 자염 생산과정을 복원한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한껏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한 해 첫 자염 생산을 시작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는 자염 생산과정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든 미니어처와 자염 생산에 사용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꽃내음이 만연한 봄을 맞이하여 저희 국립박물관에 오셔서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박물관人

ER Interview 대외협력 이선아

학술연구팀 제아름 대리, 기획운영팀 권현경 학예사

전시 운영팀 손경림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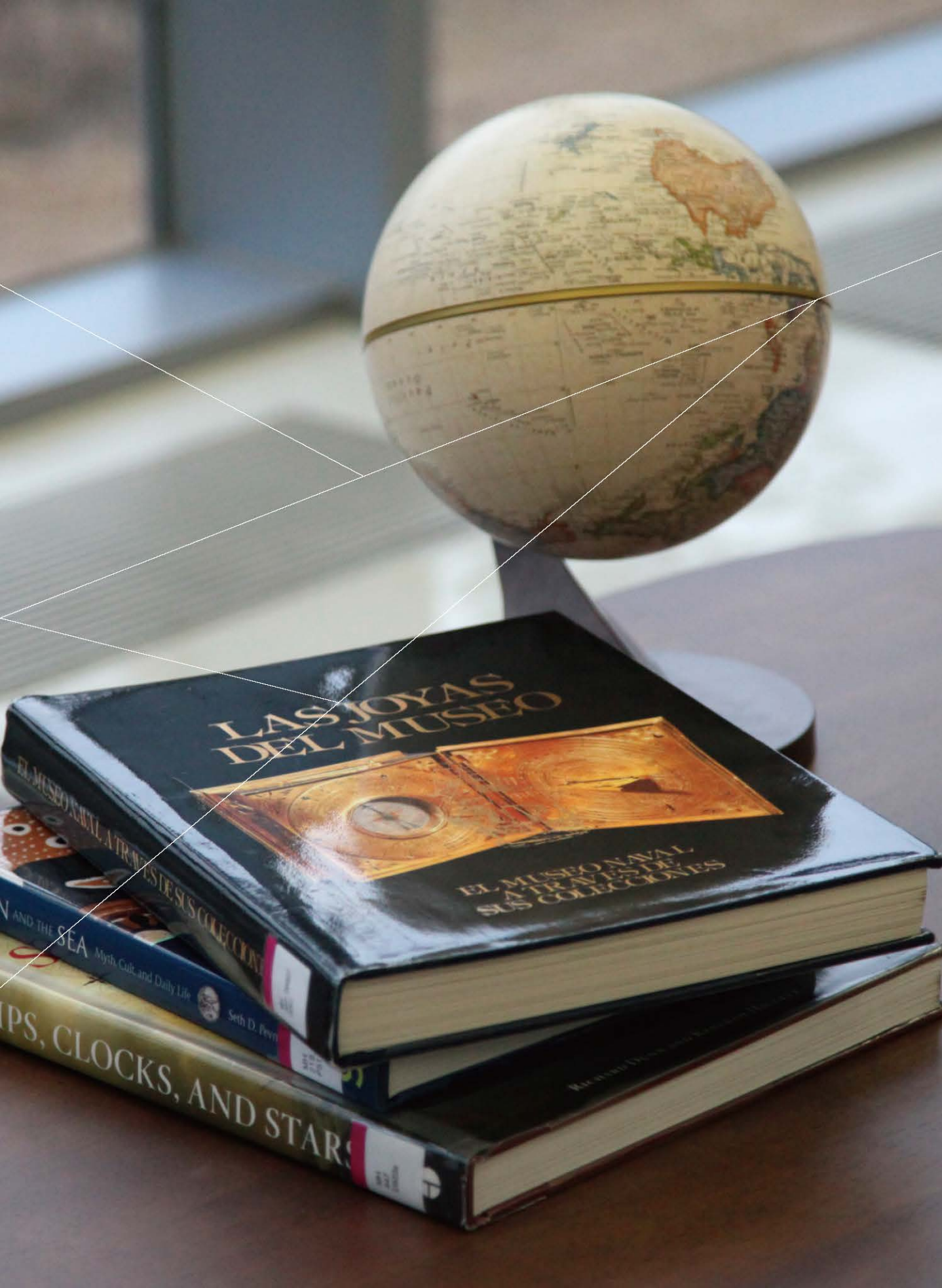
김영길 경영기획실장

도서관 담당 서인영 학예사

대외협력팀 임대혁 팀장

수족관관리팀 봉현우

Museum Interview



LAS JOYAS DEL MUSEO

EL MUSEO NAVAL A TRAVÉS DE SUS COLECCIONES

SEA Myths, Cult, and Daily Life

Seth D. Perry

CLOCKS, AND STARS

제 11호
찬란한 도전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학술연구팀 제아름 대리 기획운영팀 권현경 학예사

전[명사]

1.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권

2. 어려운 사업이나 기복 경신 파위에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려움에 맞서는 것, 전과 다른 발전을 이뤄내거나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야기할 때 '새로움',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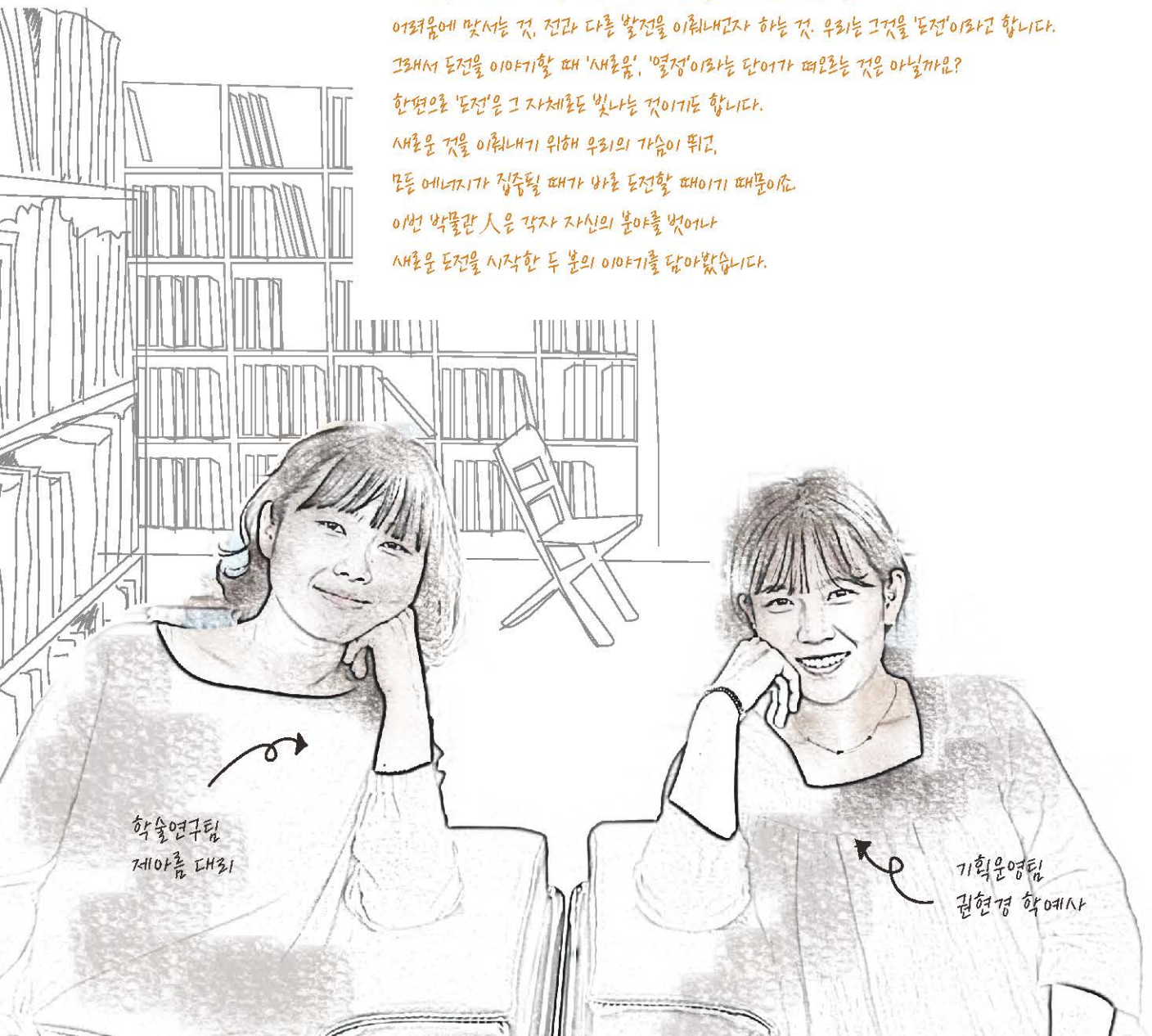
한편으로 '도전'은 그 자체로도 빛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의 가슴이 뛰고,

모든 에너지가 집중될 때가 바로 도전할 때이기 때문이죠.

이런 박물관 사람은 각자 자신의 분야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두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학술연구팀
제아름 대리

기획운영팀
권현경 학예사

Q 안녕하세요. 이번 박물관인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웹진 독자들을 위해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의 제아름 대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기획운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어요.

A (권). 네, 안녕하세요. 기획운영팀의 권현경 학예사입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국립해양박물관의 학예사로 입사하여 현재 1년 조금 넘게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기획운영팀과 학술연구팀, 각자 새로운 팀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 소감이 어떻게 살짝 여쭙봐도 될까요?

A (제). 사실 입사 후 경영기획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학예연구실 소속이 되었다가, 경영기획실로, 그리고 현재 다시 학예연구실 학술연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A (권). 작년에는 학술연구팀에서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번역 총서 발간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기획운영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지금은 우리 박물관 내규와 노사 관리 업무, 그리고 직원 복지제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업무라 웬지 첫 입사한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Q 아무래도 자리만 옮겨도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새로운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번 웹진의 주제가 '찬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도전'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A (권). 제게 있어 '도전'은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또한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저는 해양학을 전공하였는데, 그래서 박물관 학예 업무에 대해 초반에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경영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노력하려 합니다.

A (제). 저는 그 전 직장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해 왔었어요.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할 때도 있었고, 세미나/포럼을 진행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권현경 학예사님과 반대로 경영쪽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국내 학술대회'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경험해보고 싶던

업무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익숙한 것', 그리고 '즐거움'이 아닐까 해요.

Q 그렇다면 '찬란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제).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찬란한 때를 말할 수 있을까요? 타인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 언젠가를 찬란한 때였다고 평할 수는 있을 거예요. 혹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과거의 시간이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게 될 때, '그 때가 찬란했어.'라고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 미래의 누군가가 봤을 때 찬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A (권). 가끔씩 근무하다가 창문 밖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를 볼 때가 있어요. 심연 채 보는 같은 바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이 무척 설레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찬란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현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Q 두 분 다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찬란함을 위한 키워드로 '현재'를 꼽으신 것을 보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다란?'

A (권). 저의 모교 슬로건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바다는 땅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직까지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육지보다 큰 땅이라고 말씀드려요.

A (제). '산에 갈까, 바다에 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부분 '바다 갈래'라고 답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늘 바다에 들렀다가 가곤 했죠. 지금도 바다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바다는 '마음편한, 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해봤어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뚝뚝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뜻에 무억동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톰소여의 모험 작가) -
과거와 다른 나를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도전으로 이어질 때,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전은 '빛'나는 것입니다!

제 12호
만선(滿船)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전시 운영팀 손경림 대리

한 해의 결실을 만나는 시기, 우리는 보통 가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을의 풍성함을 여름의 성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여름이 더 없이 뜨거울 때,
가을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박물관인은 '만선(滿船)'이라는 주제에 맞춰
박물관의 '만선'을 이끌어내는 손경림 대리와의 만남을 전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 박물관사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운영팀 팀장직과 일본어 통역을 맡고 있는 손경림 대리라고 합니다. 전시운영 업무는 '박물관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는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람객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전시해설 등 다양한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Q 여러 주제의 상설전시와 정기 기획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박물관이다 보니, 관람객의 문의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을 문의하시나요?

A 넓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어떻게 봐야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시죠. 우리 박물관은 밖으로 연결되는 곳이 많은 오픈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동선을 짜기에 따라 다채롭게 보실 수 있거든요.

보통은 2~4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을 순차적으로 둘러보시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4~2층으로 내려오면서 보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Q 그 외에도 박물관을 즐기는 관람 Tip이 있다면요?

A 관람객 연령대에 따라 추천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분들에게는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도서관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공간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70~80대 연령층의 관람객에게는 수족관과 역사자료를 함께 볼 수 있는 3층을 추천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기획전과 상설전시를 함께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보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Q 보는 만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리님이 추천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그 곳'이 있나요?

A 개인적으로는 3층의 해양역사관이 관심 가는 장소이긴 합니다. 대학 전공이 역사분야이고, 박물관 입사 전에도 일본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박물관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게 있어 '역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어요.

Q 아, 그럼 저희가 오늘 인터뷰 장소를 잘 잡았네요!

A 네. 바다와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조선통신사선이죠. 특히 올해는 통신사 관련 사업이 많은 해여서 전 시공간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죠. 또 일본어 통역을 맡고 있다보니 관련 출장도 다녀오고, 일본 관람객들을 챙기다 보니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역사'는 변치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홍보한다면 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Q 말씀을 나누다 보니, 박물관에 대한 대리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웹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대리님이 생각하는 '만선'은 어떤 것인가요?

A 직역하면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라는 뜻이지만,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관람객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바다를 알아가는 것이 '만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지만 오셨던 분들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보완되면 진정한 '만선'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등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도 '만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바다는,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은 대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저는 역사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죠. 제게 바다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박물관은... '나의 삶'이다?! 모든 직원들이 그렇겠지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관람객을 만나고 일을 마추죠. 그래서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바로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인터뷰를 하면서 관람객이 더 즐겁고 안전하게 박물관을 접하는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그 만남이 바다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그것이 우리의 만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는 손경림 대리님과 만났습니다.

제 13호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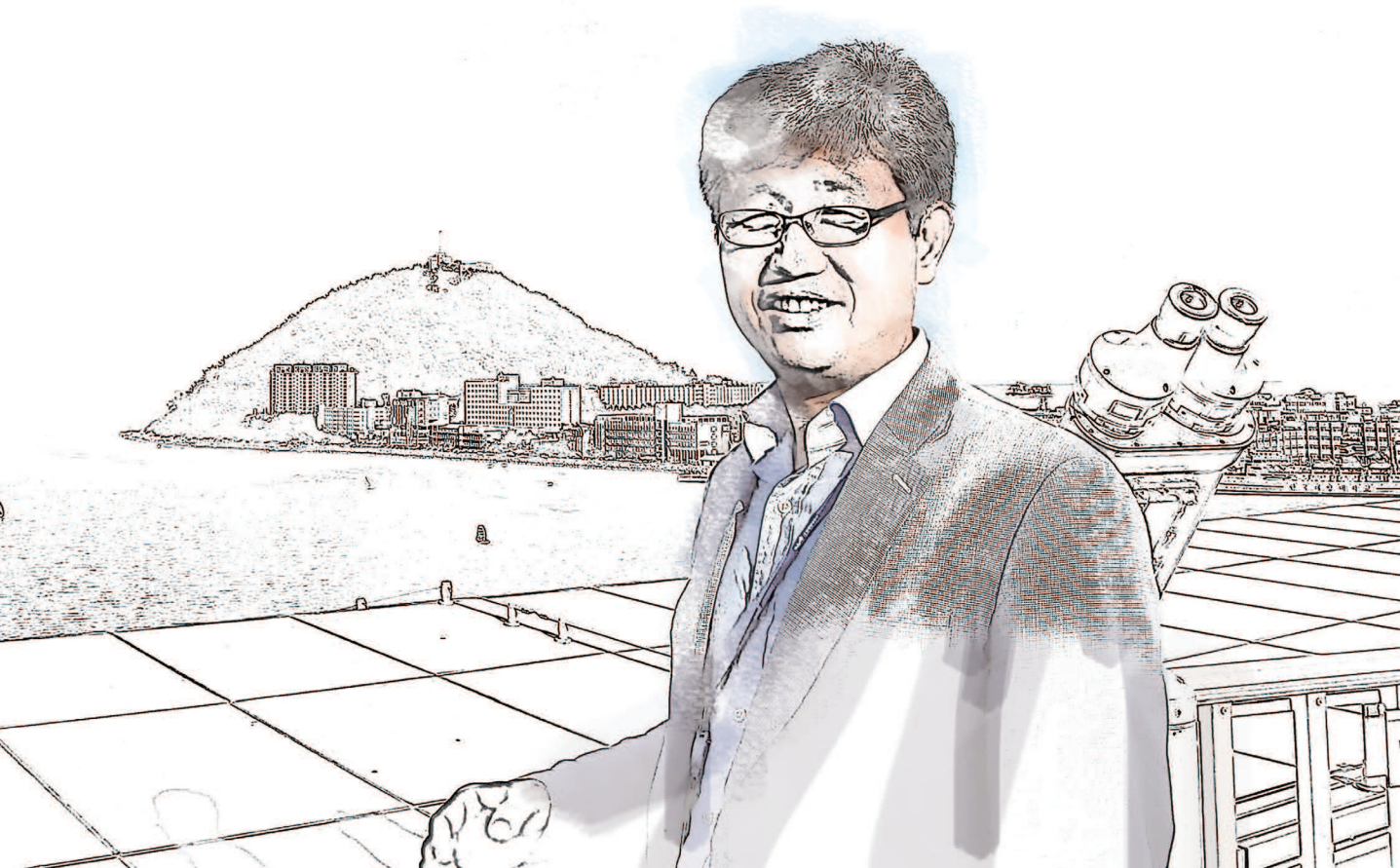
경영기획실장 김영길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다'

흔히들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사례이죠?

'섬은 외로운 곳'이 아닌 '반가운 존재'라고 이야기한 이번 인터뷰인,

김영길 경영기획실장님을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실장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지난 7월에 입사한, 新박물관人, 김영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또 이후에도 바다와 연관된 업무를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바다'를 테마로 한 국립해양박물관은 제게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박물관 내에서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려 합니다.

Q 사실 이번 박물관入의 주제가 '섬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섬은 바다에 둘러싸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실장님의 '바다' 이야기부터 들어보려 합니다.

A 멀지 않은 곳에 늘 바다가 있어서, 바다는 제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바다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바다'와 함께 한 것은 대학 때부터였어요. 항해학을 전공하면서 바다를 공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졸업 후 승선생활을 6년 정도 하면서 바다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사, 공직 등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접해왔어요. 그래서 바다는 제게 오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동경이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부러운 마음이 드네요. 바다를 향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섬을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많은 분들이 섬이라 하면 '고독함'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섬은 '희망, 반가움'이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해하다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땅은 섬이죠. 육지의 끝이자 시작이니까요. 예전에 지중해를 지날 때, 며칠간 바다만 봐서 지루해질 때쯤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섬이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불빛으로 확인하게 되니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반가움'으로 기억되네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선상에서는 집에 전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육지에서 30km 정도의 거

리에서는 통신이 조금 원활해져요. 그래서 제주도만 가까워지면 모두가 조타실로 올라와서 전화를 하죠. 반가운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다에서 섬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Q 반가움의 거리, 그럼 '섬'은 반갑기만 한 존재였나요?

A 바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가늠해야,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혹은 안전하게 갈 항로는 어디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섬은 일종의 '좌표'이기도 했어요. 항해자로서는 무척 고마운 존재였죠.

Q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혹시 앞으로 박물관이 갈 방향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살짝 들려주세요.

A 누구나 바다를 알고 있죠. 다만,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막연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박물관이 많은 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예업무와 더불어 경영기획 업무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겠죠. 그래서 박물관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전 업무들이 바다위에서 살아갔던 것이라면, 지금은 바다를 알리는 곳, 문화적으로 다가서는 업무들이니까요. 이 도전이 즐겁고 성공적인 항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문득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바다가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섬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 14호
보물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도서관 담당 서인혁 학예사

흔히들 책을 '지식의 보고'라고들 합니다.

인류가 축적한 지식들을 모으고, 기록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를 담은 것이 바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물'이라는 웹진 주제를 들었을 때 떠올렸던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번 웹진은 도서관담당 서인혁 학예사님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Q 학예사님~ 박물관에서 보니 더 반가운데요.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실 도서관담당 서인혁 학예사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료 수집·관리부터 문화프로그램 개최,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해양도서관은 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어서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해양도서관만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서관은 관람객과의 접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도서관에 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올해만 해도 '해양로에서 바다로', '독서의 달 행사', '수중고고학 관련 도서 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해양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죠.

Q 그리고 보니 저도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도서관의 책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해양로에서 바다로의 강연들도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

A 네, 해양인문학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에요. 매년 특정 주제와 관련된 도서들을 선정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그 결과물로서 책을 발간하는데요. 올해는 '바다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바다는 탐험의 공간이었기에, 인류역사상 항해와 표류는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라페루즈의 항해기', '모비딕', '포해록' 등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바다를 여행하다'는 그런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교양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왠지 '바다를 여행하다'가 우리 도서관의 필독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예사님은 어떻게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A 고등학교생일 때 대학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헌정보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해운회사에서 몇 년간 일을 하고 나니, 공부가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 때 떠오른 것이 고등학교생 때의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그 인연이 지금의 도서관 근무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Q 도서관, 바다,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이어진 인연. 지금 해양도서관이 '해양'도 다루고 '도서'도 다루기에 학예사님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A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사실 모든 주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인문, 법학, 실용 등 책이 다루는 내용은 제한이 없으니깐요. 하지만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제전문사서'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해양전문사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박물관은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책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 바다에 대해 궁금해할 때, 우리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제전문사서의 모습이예요.

Q 그렇다면, 주제전문사서로서 혹시 '학예사님의 Pick Book'이 있을까요?

A 우리 박물관 외에도 세계에는 해양관련 박물관들이 정말 많아요. 그 박물관들도 자신들의 유물, 자료 등을 담은 도록을 펴내는데, 저는 그 도록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진과 회화 등 시각적으로 바로 인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들을 몰라도 바로 이해하시기 쉽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해양문화에 대해서도 접해볼 수 있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세계 각국의 해양박물관으로 떠나는 것, 괜찮지 않나요?

Q 네! 저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예사님의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직장에서 바다에 대한 업무를 해 왔었고, 그 때의 바다는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연이 닿을지 예상은 못했었지만, 바다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을 만나고, 해양문화를 알려드리는 지금의 일도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보다 바다가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삶, 그리고 인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인터뷰를 선정했던 이유는 지식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글로서 엮어낸 '책'이 바로 보물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우리 도서관은 그 중에서도 바다의 색깔을 지닌 보물들만 모아놓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다의 보물을 찾고 싶다면,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언젠가 열려있는 해양도서관으로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대외협력팀 임대혁 팀장

'새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1년이완 시간이 주어지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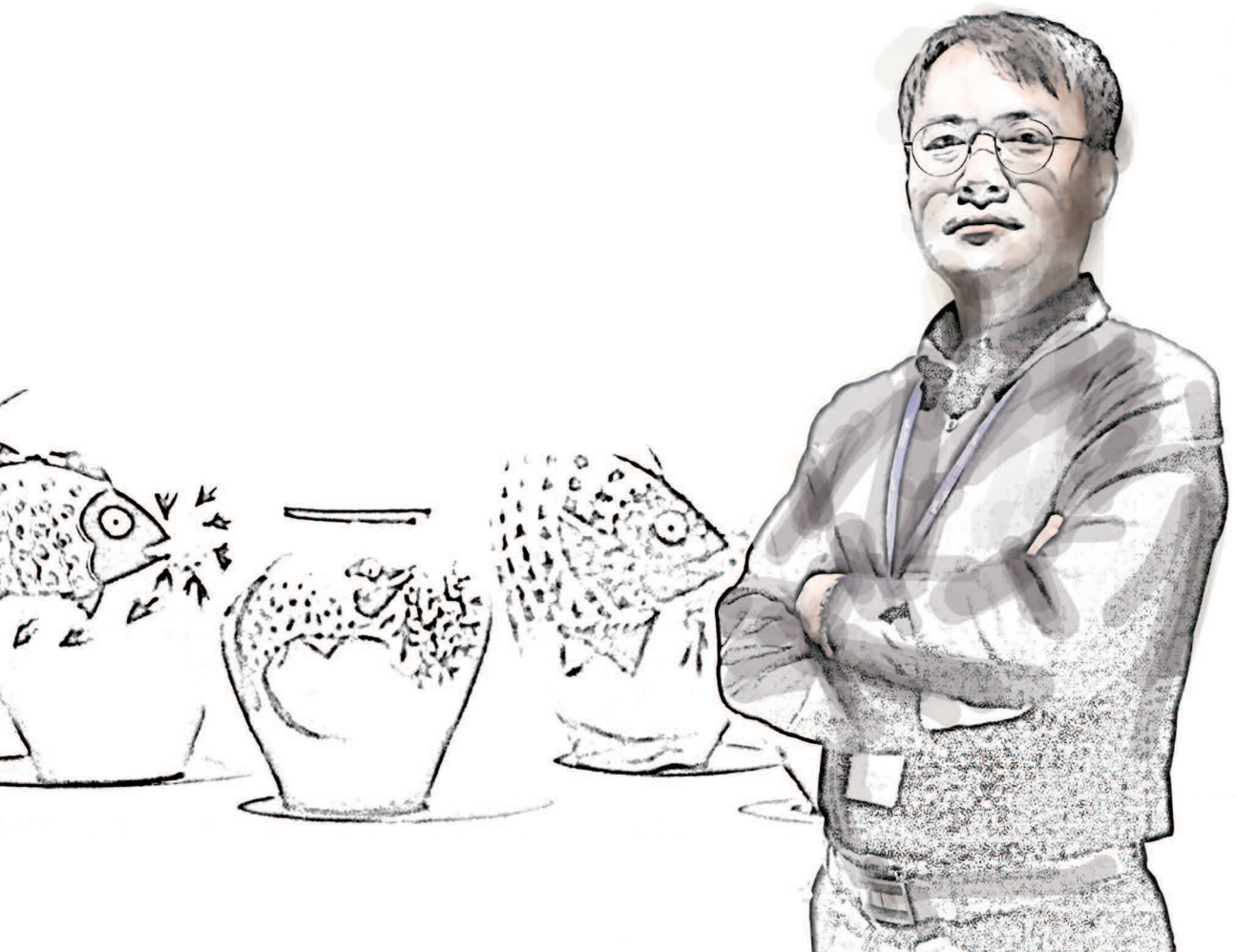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는 시점이 바로 새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길 바라고도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을 한해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박물관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외협력팀 임대혁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웹진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자로서 웹진을 접하다가, 인터뷰를 하니 느낌이 새롭네요. 저는 대외협력팀의 임대혁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은 박물관의 전시·문화행사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프로모션, 기관 간 협업 활동, 홍보업무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팀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박물관의 대외 이미지를 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Q **대외협력팀이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한해 정말 바쁘게 달려온 부서인 것 같아요.**

A 제가 대외협력팀을 맡게 된 것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외협력팀에 올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 업무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Q **올해는 그 '무엇'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해가 되겠네요.**

A 네, 제가 생각한 답은 대외적인 네트워크의 강화예요. 지금도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방문을 한 기관은 적은 편이죠. 만나서 그 기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우리의 이야기도 할 때, 함께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좋은 점들을 접목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은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회원관, 각 지역의 교육청 등을 방문하려고 해요. 또 박물관 주요사업의 부에 알리는 업무의 특성상, 각 부서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려 하고요. 그러기에 올해의 '무엇'은 '만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웬지 저도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번 웹진의 주제가 '비나이다, 비나이다'인데요. 올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빌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해주시길 수 있을까요?**

A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조직에 있다 보면 업무 일정을 중심으로 개인 일정을 구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올해에는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업무의 얘기이긴 하지만, 박물관의 각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관람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도 빌고 싶어요.

Q **혹시 소망·소원을 이루기 위해 '비나이다'를 외쳐보신 적이 있나요?**

A '비나이다'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기원·정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직접 빌어본 적은 없지만,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하시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한 뒤에는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는 법이니까요.

Q **가장 어려운 마지막 질문입니다. 팀장님께 '바다' 그리고 '박물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았었다고도 하는데, 그 뒤에 줄곧 대구에서 자라서 바다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바다'는 학력고사 후에 친구들과 갔던 해운대였습시다. 그 뒤에 해양수산부에서 일하면서 바다를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항만에서 하역하는 모습, 배의 도선과정, 배가 출항하는 모습 등을 직접 보게 되면서, 바다가 '역동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볼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바다의 진짜배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소원·기원에 대해 듣고자 했던 인터뷰는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끝맺음 했습니다. 결국 '뜨겁게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란 결론을 얻게 된 인터뷰였죠.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사, 그리고 웹진의 모든 독자들에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무엇이든, 술술 풀려라!"

제 16호
물, 출렁이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수족관관리팀 봉현우

출렁이는 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이리저리 출렁이는 물을 보면 가끔

저 물에 푹푹 뛰어들어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가끔씩 머릿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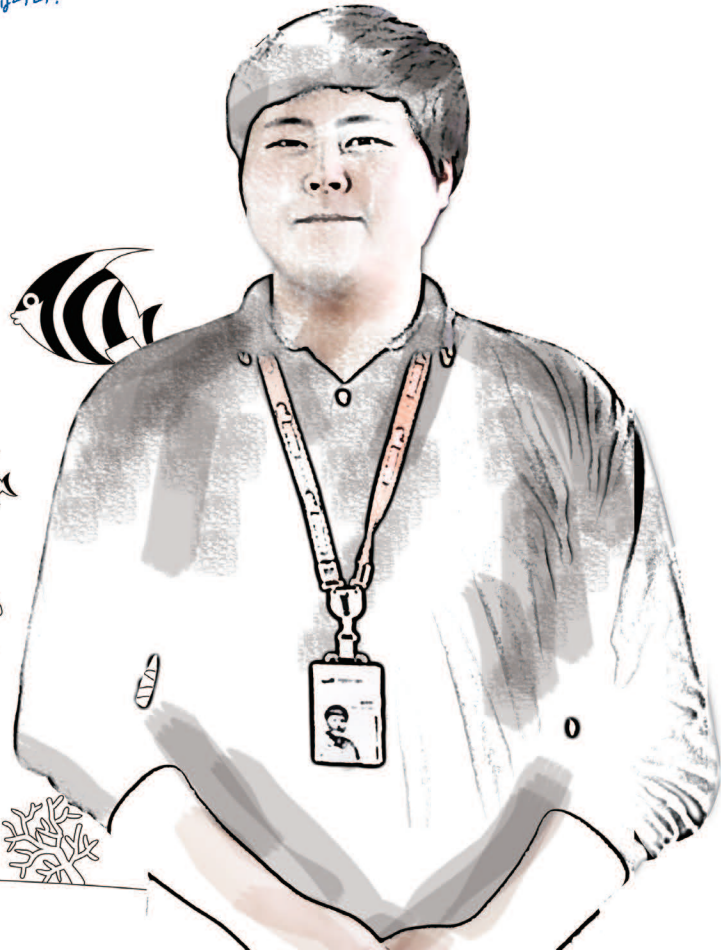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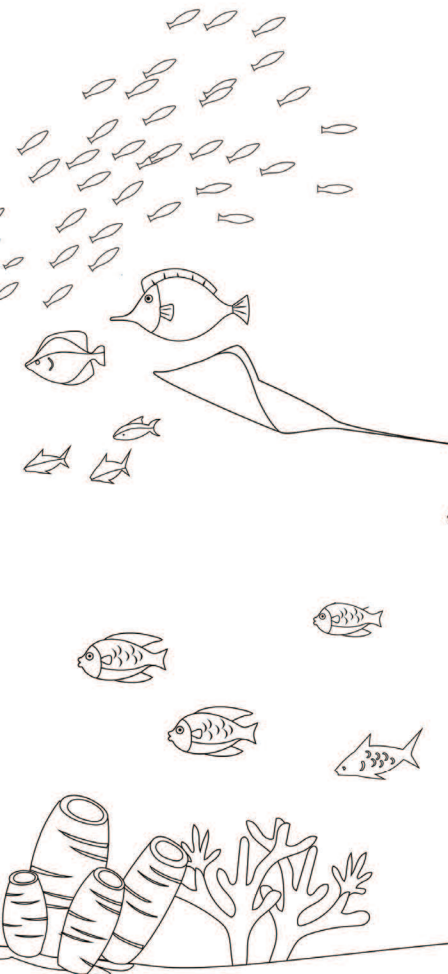
매일매일 직접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물관의 수족관 관리팀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박물관인은 수족관 봉현우 사원입니다.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해양생물들과 헤엄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왔습니다.



Q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웹진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자로서 웹진을 접하다가, 인터뷰를 하니 느낌이 새롭네요. 저는 대외협력팀의 임대혁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은 박물관의 전시·문화행사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프로모션, 기관 간 협업 활동, 홍보업무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팀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박물관의 대외 이미지를 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Q **대외협력팀이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한해 정말 바쁘게 달려온 부서인 것 같아요.**

A 제가 대외협력팀을 맡게 된 것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외협력팀에 올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 업무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Q **올해는 그 '무엇'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해가 되겠네요.**

A 네, 제가 생각한 답은 대외적인 네트워크의 강화예요. 지금도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방문을 한 기관은 적은 편이죠. 만나서 그 기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우리의 이야기도 할 때, 함께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좋은 점들을 접목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은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회원관, 각 지역의 교육청 등을 방문하려고 해요. 또 박물관 주요사업을 외부에 알리는 업무의 특성상, 각 부서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려 하고요. 그러기에 올해의 '무엇'은 '만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웬지 저도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번 웹진의 주제가 '비나이다, 비나이다'인데요. 올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빌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해주시길 수 있을까요?**

A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조직에 있다 보면 업무 일정을 중심으로 개인 일정을 구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올해에는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업무의 얘기이긴 하지만, 박물관의 각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관람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도 빌고 싶어요.

Q **혹시 소망·소원을 이루기 위해 '비나이다'를 외쳐보신 적이 있나요?**

A '비나이다'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기원·정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직접 빌어본 적은 없지만,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하시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한 뒤에는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는 법이니까요.

Q **가장 어려운 마지막 질문입니다. 팀장님께 '바다' 그리고 '박물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았었다고도 하는데, 그 뒤에 줄곧 대구에서 자라서 바다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바다'는 학력고사 후에 친구들과 갔던 해운대였습니니다. 그 뒤에 해양수산부에서 일하면서 바다를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항만에서 하역하는 모습, 배의 도선과정, 배가 출항하는 모습 등을 직접 보게 되면서, 바다가 '역동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볼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바다의 진짜배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입니다.

소원·기원에 대해 듣고자 했던 인터뷰는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끝맺음 했습니다. 결국 '뜨겁게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란 결론을 얻게 된 인터뷰였죠.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사, 그리고 웹진의 모든 독자들에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무엇이든, 술술 풀러라!"

나도 해양인

ER Interview 대외협력 반영남

데프(DEAF)2호 선장 손현중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항해사 홍문태

한국해양대학교 14학번 김은정

프리다이빙강사 백은경

천상명도 이도령 이원석

낙동강 하수기수복원생태계협의회 사무처장 최대현

I'm
a Marine
Man



제 11호
찬란한 도전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데프
(DEAF)
2호

선장
손현중



어쩌면 자기학대외도 같아 보이는,
그러나 모두가 감동할
무모한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한 청년을 알고 있다.
'나도 해양인'으로 초청하리라
점찍어둔 인물 중 특히나 애정하여,
가능하면 좀 더 아껴두고 싶었던
나의 친구를 소개한다.



상상을 해보자.

어두운 밤, 당신은 혼자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있다. 높은 파도가 사납게 배를 할퀴고, 바깥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으며 선실에는 물이 들어친다. 배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온갖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알람이 울려댄다. 이 길이 황천길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일명 죽음의 항해라 불리는 황천항해이다. 이걸 실제 요트 세계일주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한번씩은(사실은 술하게) 겪는 순간이다. 여기에 몇 가지 제약이 더 있다. 바로 무기항, 무원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부품이 고장나도 항구에 들릴 수도 없다.

외로움도 큰 문제이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동승할 수 없다.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정도만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고생을 할까 하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약이 더 있다면?

예를 들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요트가 보내는 위험의 경고음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바로 알아차릴 수 없고, 유빙을 포착한 레이더가 알람을 울려도 듣지 못하는 위험으로, 도전의 실패는 물론 생명과도 연계된 극한 상황에 맨몸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어쩌면 자기학대외도 같아 보이는, 그러나 모두가 감동할 무모한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한 청년을 알고 있다.

'나도 해양인'으로 초청하리라 점찍어둔 인물 중 특히나 애정하여, 가능하면 좀 더 아껴두고 싶었던 나의 친구를 소개한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손현중 데프(Deaf)2호 선장이다. 서면으로 그와 나눈 이야기를 여기 풀어놓는다.

바다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풍덩 빠지며 온몸으로 바다를 느끼는,
 바다의 아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중 하나인 손선장에게
 바다는 도전이자 희망이다.



Q 본인 소개를 해달라.

A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어릴 때 고열로 청력을 잃었다. 어려서부터 대항해시대를 모티브로 한 게임과 함선모형 제작이 취미였고, 엔진이나 기계에도 관심이 많아 기관사를 꿈꿨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기관사의 꿈을 접어야 했고 전자공학을 공부하며 수중탐사로봇에 관심이 생겨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학하여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Q 그렇다면 기관사 대신 요트 선장을 택하게 된 것인가.

A 그렇다. 해양대학교로 진학하며 매일같이 바다를 접하다 보니 어릴 적의 꿈이 생각났다. 나만의 배로 넓은 바다를 누벼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일단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하고야 마는 성격이라 생활비를 아껴서 중고 모터보트를 털적 사버렸다. 그렇게 저질러버리기는 했는데 학생신분으로 모터보트의 연료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등의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요트였다. 바람을 주동력으로 하니 연료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어지간해서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불침선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마음을 먹고 나니 하루 빨리 요트 선장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윤태근 선장과 군산의 내로라하는 요트 고수 박재일 선장을 부탁대고 찾아가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요트에 대해 배웠다.

Q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다. 요트 항해에 어려움은 없나.

A 요트 항해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계속 서로 소통하며 운행해야 하는 요트의 특성상 나는 좋은 크루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요트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팀워크를 못 맞추는 크루가 되기 보다 단독항해를 잘하는 선장이 되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요트면허를 따고 낡은 29피트 중고요트를 구매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 요트가 생겨도 항해는 순탄치 않았다.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자리가 나지 않아 불안정한 계류 자리를 옮겨 다니며 스트레스와 악몽에 시달렸다. 낡은 요트는 안팎으로 물이 새어 틈나는데로 물을 퍼내야 했고 오토파일럿(자동조타기)이 없어서 항해 중 잠시도 쉴 수 없었다. 항해장비도 턱없이 부족해 심지어 기본적인 속도 확인도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와 거리가 멀지만 안정적인 통영으로 요트를 옮기고 주말마다 통영을 오가면서 요트정비에 매진했다. 부족했던 오토파일럿과 GPS 장비를 연구해서 직접 만들어 장착도 하고 엔진수리 등을 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왔다.



Q 최근에 요트를 업그레이드 해서 구입했다. 이유가 있다.

A 2016년 7월 무기항 무원조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님의 아라파니호의 마지막 항해를 국립해양박물관의 초청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계를 일주한 요트를 타고 김승진 선장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 강렬하게 뇌리에 새겨졌다. 전설 속 무용담처럼 이득하기만 느껴졌던 세계 일주에 나도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간절한 꿈이 생기자 용기는 저절로 생겨났다. 세계 일주에 도전하기 위해선 대양항해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던 낡고 작은 요트로는 불가능했다. 공들여 어렵게 가꾼 요트와 장비를 급매하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을 합쳐 간신히 구입한 요트는 아라파니호와 같은 회사에서 건조되었으며 아라파니호 보다는 좀 더 작고 연식이 많지만 충분히 연습한다면 든든한 세계일주의 동반자가 되어 주리라 본다.

Q 아라파니호의 마지막 항해를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진다. 손선장에게 있어서 도전이란 무엇인가, 목표한 도전과제가 궁금하다.

A 나에게는 두 명의 롤모델이 있는데, 김승진 선장과 게리휴즈(Gerry Hughes)이다. 김승진 선장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 게리 휴즈는 스코틀랜드의 청각장애인으로 2012년 9월 1일 스코틀랜드 트룬(Troon)을 출발해 8개월간 항해 끝에 청각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일주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세계일주 도중 남대서양에서 자동조타장치와 전자장비 결함으로 이쉽게도 희망봉에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세계일주 기록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휴즈가 달성하지 못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세계일주에 도전해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걸었다. '인생의 목표'씩이나 될 정도인가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어려운 도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의 과제로 삼고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 도전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목표를 위해 바다달팽이처럼 꾸준히 준비하려고 한다.

단독항해인 만큼 피로도와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수중로봇을 전공을 최대한 살려 요트의 돛을 자동으로 조종하는 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해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할 것이다.

또한 오토파일럿(자동조타기), GPS, 풍향풍속계 등과 같이 항해에 중요한 항해장비를 직접 개발해서 어떠한 고장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번 도전의 가장 큰 난제가 있으니, 바로 가족들이다.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벌써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세계일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하신 엄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음을 조금씩 꾸준히 보여드릴 것이다.



바다에 중독된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바다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풍덩 빠지며 온몸으로 바다를 느끼는, 바다의 아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중 하나인 손선장에게 바다는 도전이자 희망이다. 그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써 부디 바다가 그에게 한없이 너그럽기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베풀어 언젠가 요트세계일주에 성공한 그의 사진을 신문에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 12호
만선(滿船)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항해사 홍문태

내가 가진 선원에 대한 이미지는
뽀빠이처럼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인상을 쓰고 있으며,
담배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섞인
거칠고 강한 사나이쯤 된다.
하지만 이번 호
나도해양인의 인터뷰로 만난
홍문태 항해사는 내가 가진 이미지의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선하고 순한 인상을 가진 그는
질문에 조곤조곤 대답하면서 좀체
감정의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지간한 강골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시간에 관한 것이어서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참치를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은 걸까'
궁금했지만 질문이 점잖지 못하여
꼭 참고 그와 나눈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그에게 원양어선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경험들을 들으며
나였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들도 많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그가
천상 바다사람이구나 싶었다.



Q 원양어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인터뷰에 모시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A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되시고 자격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좀 쑥스럽네요. 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원양어업선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0호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문태라고 합니다.

Q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양어선에 승선할 생각을 하셨나요?

A 저는 부경대학에서 해양생산학을 전공하고 어선 3급 항해사 면허를 받아서 병역 특례로 어선을 타게 되었어요. 원양어선이 힘들니까 상선을 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냥 원양어선을 선택했고 병역을 마치고도 조금 더 타다가 어업관리단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지만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웃음). 제가 처음 탄 배는 참치선망어선이라고 참치를 그물로 싸서 잡는 그런 어법을 구사하는 선박이었는데 중서부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같은 작은 섬나라들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임료를 내고 참치를 잡았어요. 첫 출항으로 2년정도를 배에서 보냈어요.

Q 원양어선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막연하게 힘들겠거니 싶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원양어선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탄 참치선망어선은 육체노동을 함께 해야했어요. 처음 탄 배가 1,200톤이었는데 규모가 좀 있는 어선이었지만 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해서 25명 정도였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항해사고 선원이고 관계없이 어로작업을 하고, 그물을 당기고, 생선을 나르고 만선을 하면 운반선에 고기를 하역도 해야 하고 이런 육체노동이 많았어요. 제가 3등 항해사로 배를 타서 2등 항해사로 내렸는데 모두 똑같이 항해사 일도 하면서 어창에 들어가고 갑판에서 그물을 당기고 하는 작업을 다 했었어요. 위험하기도 해요. 어창에 들어가서 생선을 하역하는데 참치가 팡팡 열어 있으니까 던지는 참치에 맞을 수도 있고 로프가 끊어지거나 크레인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어요. 어디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힘든 것은 아마 사람과의 관계일 거예요. 한 번 출항하면 서른 명도 안 되는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이년 정도를 계속 같이 생활해야 하잖아요. 남자들끼리만 있는데도 일도 고되고 외롭기도 해서 괴팍해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항지에서 다른 선사 사람들을 만나거나, 특히 어는 사람을 만나면 더 반갑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요.



Q 어디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지간히 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일거예요. 이번호 주제가 만선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만선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어요?

A 원양어선은 나가면 다 만선은 하죠. 만선을 할 때까지 고기를 찾아다니니까요. 다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만선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선장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두 달 안에는 만선을 해서 하역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아니고 고기를 잡은 어획고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만선을 했을 당시의 평균 어가(漁價)를 기준으로 제 직급에 맞게 배분이 되는데, 15일 만에 만선을 하느냐 2달 만에 만선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선 자체가 좋다고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만선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Q 정말 오늘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네요.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항해사님에게 바다란 무엇인가요?

A 바다를 오랫동안 봐왔고 지금도 매일 보지만 저에게 바다란 그래도 또 보고 싶은 곳입니다. 바다만큼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에게 원양어선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경험들을 들으며 나였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들도 많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그가 천상 바다사람이구나 싶었다. 비록 지금은 원양어선이 아닌 다른 배에 승선하고 있지만 바다 곁에 지내며 바다를 닦아버린 모습을 보며 내가 이번에도 ‘나도해양인’의 가장 책임자를 찾아냈구나 하며 혼자 흐뭇해 하였다.

제 13호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한국 해양대학교

14학년 김은정

국립해양박물관은

영도(影島)라고 하는, 부산의 남쪽
해안에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영도의 동쪽 해안에는

'조도朝島 (또는 아치섬)'라는

작은 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해양교육을

주도하는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섬 속의 섬에 자리 잡은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서 4년차를 맞이하는

학생, 이번호 주제인 "섬이 있다"에

딱! 맞는 주인공을 찾은 듯하다.

김은정씨와 나는 이야기들 메르진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한다.

Q 안녕하세요. 메르진 독자여러분께 은정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14학년 4학년
에 재학 중인 김은정입니다. 고향은 제주도이고 대학에 진학하며 부
산 영도로 오게 되었어요.

Q 와~ 의도치 않게 정말 이번 주제에 딱 맞는 분을 만나게 되었
네요. 제주도에서 태어나 쪽 자랐다고요. 어떻게 해양대학교를 선택
하게 되었나요? 해양대학교 첫인상이 어땠어요?

A 고향은 제주도 서부 협재해수욕장 가까운 곳인데요. 그곳에서
태어나 쪽 살다가 육지로 나가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육지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가고자 마음먹었어요. 국립대학교 중에서 성격과 적
성에 맞추다 보니 한국해양대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지리적인 부분
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다가 처음 대학을 방문했을 때
좀 놀랐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육지로 나가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다시 섬으로 오게 되었네요. 보통 다른 대학들은 대학로
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우리 대학은 그런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Q 저랑도 비슷한 점이 있네요. 저도 거제도에서 태어나 자랐거든
요. 고등학교 때인가 급훈이 "대륙진출" 뭐 그런 비슷한 말이었던
데, 저도 어쩌다보니 섬(?)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저희 둘다 본투비
섬사람이네요. 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거
있나요?



처음 대학을 방문했을 때
좀 놀랐어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육지로 나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섬으로
오게 되었네요.



A 음, 연육도(聯陸島)이긴 해도 어쨌든 섬이니까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태풍이 올 때는 더 그래요. 보통 날씨가 아주 좋으면 휴장이 되어서 크게 위험한 적은 없었는데 2016년 차바가 왔을 때는 기억에 남아요.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는데 방파제를 지나야 학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심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셔틀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안으로 물이 차들어오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좀 무섭기도 했고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어요.

Q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상보다 규모가 커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특히 부산에 피해가 많았죠.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니 다행이네요. 은정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섬에서 살아온 셈이잖아요.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은정씨의 정서나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A 제 고향친구들끼리도 종종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좁육지사람들에 비해서 성격이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바다가 가까운 주택에 살았는데 자주 바다에 나가서 놀았어요. 어릴 때는 바다에 나가면 전복도 왕왕 보이고 문어도 있었어요. 보말 주으러도 자주 갔었고요. 가족들 다같이 밤낚시도 종종 가는데 낚시 자체보다는 함께 먹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더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구요. 자연 속에서의 이런 기억이나 체험들이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비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심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셔틀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안으로 물이
차 들어오는 거예요.

대륙진출을 꿈꾸었으나 섬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기구한(?) 운명에 맞장구치다 보니 그녀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평생 산과 바다 중 한 장소만을 선택하여 살 수 있다면 어디를 택하겠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바다를 선택한 것이다. 역시 본투비 섬사람, 결국엔 바다 곁을 선택한다. 그녀의 대륙진출과 함께 바다가 주는 삶의 여유를 널리 전파하는 해양인이 되기를 바라본다.



제 14호
보물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프리 다이빙

강사 백은경



나도 어디 나가면 인생 참 부지런히 살기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 사람! 이길 수 없다. 기
본 3가지의 현업을 가지고 있고 너댓개의
부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마스터프리다이빙강사자격에
EFR 응급처치 트레이너,
바리스타, 구연동화1급, 요양보호사 2급,
사회복지사,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한식·양식·
중식·일식·복어·제과제빵 기능사, 한국어교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읊자니 공간이 부족하다.
동해변쪽 서해변쪽 홍길동이 따로 없고,
목적도 좋아 그녀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
하지만 이 모든 커리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 뭘까.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Q 메르진 독자분들께 선생님(그녀와는 프리다이빙 수업
의 강사와 학생으로 만났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저는
도저히 한마디로 정의를 못내리겠어요. 직접 소개 좀 해주
시죠.

A 저는 현재 식품조리학 강사이자, 마스터프리다이빙
강사이자, ERP 응급처치트레이너이자, 중·고등부진로체
험 강사, 요즘은 이정도로 하고 있는 백은경이라고 합니
다. MBTI 성격유형검사 아시죠? 저는 그 중에서 전형적인
ESTJ 유형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고 행동력이 강하며 효율
적인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끊임없이 움직이죠. 하루에 거
의 네시간 이상은 안자는 편이에요.

Q 어휴, 저로서는 엄두도 만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빡
센’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신거예요? 천성인가요?



A 부모님이 워낙 저희 자매를 어릴 적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우셨어요. 천성이 부지런히 움직이는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제가 여자 치고는 체력도 좋고 강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이라 장교시험도 보고 경찰시험도 봤었어요. 모두 양쪽 눈이 교정이 힘든 난시 때문에 최종 탈락하기는 했지만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생활을 하며 돈을 벌면서 부리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체험과 경험에 많이 투자했어요. 해양스포츠를 즐기게 된 것도 그 일환이구요. 수영이나 스쿠버, 서핑도 즐겁게 배웠고 물에서 자주 놀다보니 사람 여럿 살렸죠. 하하하

Q 역시 선생님 다우세요. 장교나 경찰에 도전했다가 불합격 하셨다니, 현역 장교들과 경찰들 안심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그녀 밑에서 훈련 받았단간...). 저 사실

선생님 수업 들으며 벌벌 떨었던 순간이 여러번 있었거든요(웃음). 그럼 이런 과정 중에서 지치거나 침체되거나 또는 슬럼프가 오거나 하는 순간은 없나요?

A 제가 지치는 유일한 순간은 아무것도 안할 때예요. 3년 전에 크게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워낙에 희귀한 병이고 완치도 없는 병이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약이랑 주사가 독해서 부작용이 심했는데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하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일상 그대로 살면서 그 순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계기로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 병이 젓산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몸(근육)이 힘든 운동은 하면 안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도 격한 운동이라고 금지시키던데요. 걸기도 20분이상 안된데요. 그래서 1년 운동을 전혀 못

하고 있던차에 프리다이빙을 알게 된거예요.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서 조용히 놀다올 수 있는 운동이라 저한테 아주 제격이었죠. 제가 한 번 시작 하면 제대로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강사 자격까지 딴거예요.

Q 아, 프리다이빙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신거군요. 그럼 3년만에 강사 자격까지 따신거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그냥 물을 좋아하셔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일환인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네요.

A 물을 좋아하는건 맞아요. 전 하수구물 빼곤 다 좋아하죠(웃음). 파도를 즐기는 서핑도 좋고, 물속 풍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스킨스쿠버도 좋은데, 프리다이빙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무런 도구도 없이 내 숨만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비록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롭거든요. 보통 수심 10m 안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물고기랑 부딪히거나 문어랑 눈이 마주칠 때는 짜릿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 같은 평화로움도 느끼고요. 물에서 나오며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 때야,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수시로 들어요.

Q 직업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취미도 워낙 다양하시고. 하루가 모자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수산교육을 전공하고 식품조리학을 강의하고, 프리다이빙을 가르치는 것들 사이에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키워드 같은 것이 있나요?

A 그럼요. 공통점이 있죠. 모두 환원이 목적인 것들인걸요. 돈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시작한게 많아요. 제가 한번 배우면 열명 백명에게 제가 배운 것을 전달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체험강사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정리하자면,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즐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제가 가진 신념을 실천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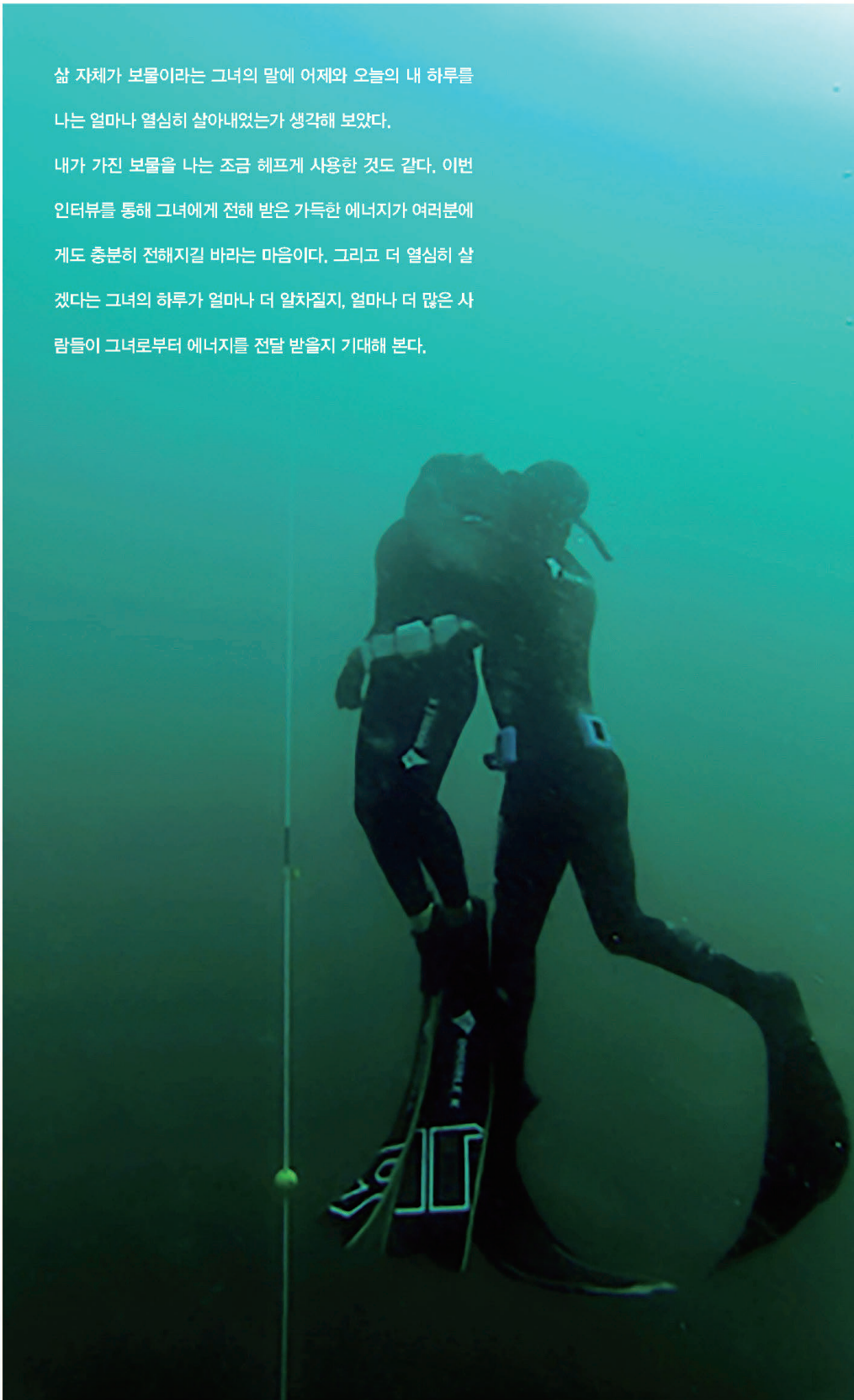


Q 제가 정말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저한테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선생님에게 보물은 뭔가요?

A 저에게 있어서 보물은 “삶” 그 자체예요. 살아 있다는게 보물이에요. 많이 아파보니 알겠더라고요. 살아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의 인생도 텅 같은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즐기면서 살거예요.

삶 자체가 보물이라는 그녀의 말에 어제와 오늘의 내 하루를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었는가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가진 보물을 나는 조금 험하게 사용한 것도 같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녀에게 전해 받은 가득한 에너지가 여러분에
게도 충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
겠다는 그녀의 하루가 얼마나 더 알차질지, 얼마나 더 많은 사
람들이 그녀로부터 에너지를 전달 받을지 기대해 본다.



제 15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국립해양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영도에는
어부와 해녀들이 주로 살고 있는
어촌마을이 많은데, 그 중 하리항에서는
50년이 넘게 매년 삼월 삼짇날마다
성대한 만선풍어제를 지내고 있다.
해양 민간신앙을 주제로 다루며
하리항 풍어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가 하리 거주자이며, 지난해 신명
나는 쟁과리 소리를 듣고 밥을 하다
맡고 뛰쳐나가 뉘 놓고 굿판을 구경하며
짹짹박수 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굿판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이고
무속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어서 작두를 올라타고,
칼을 삼키는 시늉을 하는
모습들이 신나기도 하고, 처연하기도하여
내 가슴속에 깊게 남았더랬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해양인은
지난해 하리항 만선풍어제를 담당했던
<한국민속문화삼죽오연합회>의
무속인 이원석씨, 그리고 인터뷰
중간중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첨언을
해준 연합회의 최태완 이사장이다.

천상명도

이도령 이원석

Q 만나서 반가워요.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원석이라고 하고요, 부를 때는 이도령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천상명도 이도령이고요. 칠년째 굿판을 쫓아다니며 배우고 있고 주로 태평소 호적을 부는 악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따로 신당을 차리고 점을 봐주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Q 제가 무속 쪽으로는 잘 모르고 경험이 적어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떻게 무속인이 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A 어찌다가 이렇게 됐다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네요. 어찌다 보니 22살에 내림굿을 받고 입무(立巫)해서 7년째 무속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매력을 느끼고 빠져든 분야는 시나위예요. 신의 음악이라고도 하죠. 정해진 악보 없이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서 차츰 빨라지며 신명을 더해가는 것도 좋고, 불협화음 같은 소리들이 중국엔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서양음악에 재즈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시나위가 재즈 격인데 예술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무속인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즐기고 잘 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는,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Q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촌의 굿과 육지의 굿에는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차이 인건지 그리고 어촌 지역에서 하는 굿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려주세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최태완 이사장이 답했다.)



여름 땡벌에서 몇 시간 동안
태평소를 불고 있으면
강신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황천으로 갈 것 같죠.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견딜만해요.
그냥 뭐 운명이죠.



A 육지곳이랑 바다곳은 아주 많이 달라요. 일단 크게 보면은 육지는 강신무가 많고 바다곳은 세습무가 많죠.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알기 쉽게 말하자면 강신 무는 무당의 몸에 신이 내려서 하는 것이고 세습무는 사제 관계를 통해 스승에게 배워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다 쪽은 워낙에 자연환경이 거치니까, 하늘에 기대어야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무속신앙도 빨리 발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체계화되었다 보는 의견이 많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 곳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이자 축제였는데 이제 곳을 하는 마을도 많이 줄었을뿐더러 제의라기보다는 문화행사나 이벤트에 더 가까워진 경향이 많아요. 보통 별신굿 12장을 하면 적어도 3일 이상은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에 빨리 끝내려고 해요. 흥겹고 볼거리가 많은 장 위주로 구성하기도 해야 하고요.

Q 이도령님은 7년을 고티판을 따라다니셨다 했어요. 힘든 일도 있고 기억에 남은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별신굿 열두거리를 하면 각 거리를 담당하는 무당이 곳을 진행하지만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모든 거리에 다 참여를 해야 해요. 더군다나 호적을 불다 보니 몇 시간 지나면 정말 하늘이 노래지기도 하고요. 여름에 땡벌에서 몇 시간 동안 태평소를 불고 있으면 강신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황천으로 갈 것 같죠.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견딜만해요. 지화(紙花)와 흑애등으로 장식한 무대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뭐 운명이죠.



Q 제가 이도령님을 해양인으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바다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해주세요.

A 저도 고향이 영도예요. 여기 무속인연합회 이사장님도 영도분이시고요. 영도에 무속인이 정말 많아요. 영도다리 밑엔 점바치(점쟁이) 골목도 있었죠.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헤어진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어 점에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실제로 가족을 찾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통에 겪은 두려움이나 슬픔, 걱정, 답답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겠죠. 현대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우리 무속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역할 때문이 아닐까요.

견기를 즐겨하는 나는 영도해변을 따라 걷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암석에 녹아 붙은 쫓농 자국 뿐 아니라 용왕 맞이 곳을 하고 있는 광경들을 종종 마주치곤 한다. 어떤 소원이 있어, 혹은 어떤 걱정이 있어 저리 정성스레 용왕님을 찾을까 궁금하면서도 저런다고 뭐가 바뀔까 싶은 회의적인 생각도 했다. 하지만 과학이나 효용,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 사람들의 걱정과 한, 그리고 소원을 떠안고 대신하여 간절히 빌어주고 풀어주는 그들의 역할은 불안하고 외롭기까지 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내가 모르던 세상의 속살을 한 꺼풀 더 벗겨본 것만은 분명하다.

제 16호
물, 출렁이다

나도 해양인
I'm a Marine Man

낙동강 하수기수복원 생태계협의회

최대현 사무처장

'열정'이란 단어가 청춘의
전유물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생태계를
위해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를 보며 '열정'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그의 주요 출몰지는 낙동강 물줄기가
지나가는 모든 곳,
부산의 산과 저수지들이다.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은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가 죽어가는 곳은 살리기 위해
끈질기게 찾아다니고 알리고 촉구한다.
열정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
마음이 없다면 가지 않을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낙동강하구기수복원생태계협의회'의
최대현 사무처장. 출렁이며 살아있는
물을 이야기 하는 이번 호 메르진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만남이다.

Q 올해 부산시에서 개최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해온 사업들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일텐데 본인 소개와 함께 속해있는 '낙동강하구기수복원생태계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냥 나 스스로는 환경운동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은 흐르고, 산은 우뚝 서 있고, 때가 되면 철새가 날아들고 개구리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즉 자연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거죠.

특히 낙동강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낙동강 유역면적은 2만 3800여km로 남한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며, 부산뿐 아니라 대구, 경북 안동 등 54개 시·군·구의 1,200만 명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각종 동식물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길에 막히면 생명길도 막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상처 받은 물길을 치유하고자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많다. 내가 속해있는 낙동강하구기수복원생태계협의회가 그렇죠. 이 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염원하는 부산지역 NGO단체들이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2012년 7월 9일 발족해 현재까지 62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복원을 위해 민관소통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하굿둑은 알겠는데 ‘기수’라는 용어는 생소하네요. ‘기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과거 하굿둑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농작물 보호 등이었지만 지금은 기술발전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굿둑 수문개방은 환경과 인간이 상호 소통하기 위한 순리입니다. 80년대말 취수원 확보와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둑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생명의 강을 보듬을 때다. 하굿둑이 개방되면 강과 바다가 만나 기수역이 조성돼 재첩, 용어, 장어, 게 등의 생물자원이 풍부해지고 낙동강에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하굿둑 개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A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여러 활동가, 일반시민들이 함께 현장조사, 토론회, 워크숍, 각종 포럼 등 진행하면서 정책대안 제시, 대국민 홍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굿둑 개방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최근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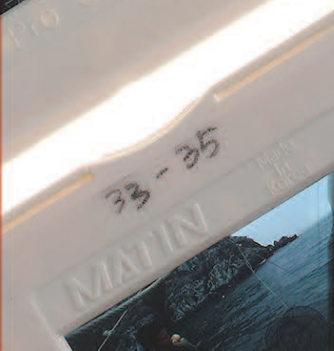
Q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귀뜸해 주세요.

A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낙동강 하굿둑이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굿둑 개방이 끝이 아니죠. 앞으로 기수역 관리주체 문제,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태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변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 후 기수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물관 뉴스

Merzine News



PROLOGUE 박물관 뉴스(2017년)

1. 경영뉴스

〈주요 경영 성과〉

예산 및 인력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00% 달성	가족친화 인증 획득
<p>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박물관 증장기('18~'22년) 사업계획을 수립('17.5월)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사업 설명과 협의를 통해 '18년도 정원을 3명 증원, '18년도 총예산을 전년 대비 11.4% 증액하여 총 91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박물관 주요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p>	<p>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 발표 이후 전문기관 전문 컨설팅('17.8~9월)과 전환 결정 기구인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7.11~12월), 전환 대상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절차를 거쳐 '17년도내 대상자 15명에 대한 전환을 100% 완료하였다.</p>	<p>일·가정 양립을 실현을 위해 정시·조기퇴근제 도입, 유연근무제 활성화(전년도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 2.3배 증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100%), 육아휴직 제도 확대(1년→3년) 등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여성가족부)을 획득하였다.</p>

〈관람객 현황〉

1) 600만 관람객 돌파

'12년 7월 개관하여 5개월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고, 이후 매년 평균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만 5년만인 올 8월초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였다. 6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된 주인공은 수녀님(대전 거주)이었다. 한편, '17년도 관람객은 12월 31일까지 1,082,378명(일평균 3,447명)으로 누적관람인원은 6,443,102명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관람객 현황〉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관람객		1,001,941	1,191,348	986,140	1,070,048	1,111,247	1,082,378	6,443,102

2) 연령대 별 현황

연령대 별 관람객은 분기별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전체 응답자(1,188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27.8%)이며, 가장 적은 연령대는 20대(6.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관람객 비율 현황은 그림1과 같다.



3) 외국인 관람 현황

외국인 관람객은 총 24,619명으로 총 관람객 대비 2.27%를 차지했으며, 1월(3,941명)에 가장 방문이 많았고, 12월(1,390명)에 가장 방문이 적었다. 이는 외국인 관람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어권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중국어권(20,388명/82.8%)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 2017년 개최 전시

〈연간 전시개최 현황〉

구분	전시명	기간	관람일수 (휴관제외)	관람 인원
기획전	〈친란한 도전〉	5.30~8.27	총 78일	36,686명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12.5~'18.3.4	총 89일	45,266명
테마전	〈먼바다, 만선의 꿈〉	6.29~9.17	총 70일	-
	〈해녀, 육지를 만나다〉	9.16~11.12	51일	-
	〈서해수호의 날 기념전〉	3.24~5.14	35일	-
	〈조선의 명장, 이순신〉	4.24~	계속	-
소전시	〈해양수산 미래비전〉	5.31.	1일	-
	〈바다사랑, 어촌사랑〉	6.27~10.15	95일	-
	〈제주 해녀 문화와 등대〉	9.16~11.12	51일	-
	〈독도의 날 기념〉	10.24~11.5	12일	-
	〈부산국제수산 엑스포 홍보〉	11.8~11.10	3일	-
	〈통신사의 길〉	12.28~'18.3.4	79일	-



〈기획전시〉

1) '찬란한 도전' 기획전

- 목적 :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김승진 선장 등 전세계 요티(yachtie; 요트 타는 사람)들의 도전정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8월 20일(일) / 2층 기획전시실
 - 전시자료 : 총 34건 53점
 - 전시내용

구분	주제	전시내용	전시자료 / 연출매체
1부	바다에 도전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의 역사 - 왜 인류는 바다에 도전하기 시작했을까? - 고대 : 항해를 배우다 - 중세 : 세상을 발견하다 - 현대 : 바다를 정복하다 - 미래 : 바다를 즐기다 	아우트리거 카누 모형 파푸아뉴기니 통나무 배 파피루스 배 모형 이누이트족 카약 모형 제임스 쿡 항해기 산타 마리아호 모형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모형
2부	찬란한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승진의 도전 - 김승진의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 - 요트 세계일주 중 의식주 - 바다에서 만난 친구들 • 김승진 선장의 요트 세계일주 에피소드 영상 	- 기록 인증서 - 서바이벌 키트(비상식량, 낚시도구, 위성신호기 등) - 식량(생수 450병, 쌀 20kg, 라면 100개 등) - 항해일지, 해도, 행운의 부적 등 - 알바트로스, 날치 표본 등
3부	나의 아름다운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배로 세계 일주를 하는 가상체험 	- 디지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 예산 : 일억오천삼만삼천육백원(₩150,033,600원)
- 성과 : 관람객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개발·반영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기획전시〉

1)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 기획전

- 목적 : 개관 이후 수집한 2만 여 점의 자료 중에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공개하여 소장 자료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7. 12. 5. ~ 2018. 3. 4.(총 89일/휴관일 제외)
 - 전시자료 : 총 68건 95점
 - 전시내용

	주제	전시내용	전시자료 / 연출매체
	프롤로그	전시 개요	
1부	항해의 시작, 그리고 바다	- 서양 항해의 시작과 관련한 해도첩, 지구의 천구의, 항해도구 - 바다로 이어진 세계, 항해기	- 그래픽 패널 - 더들리, 구스, 벨렝 해도첩 - 항해 도구와 항해기 - 영상 및 홀로그램 등 활용
2부	바다의 역사, 그리고 바닷길	- 고지도 속 바닷길 - 교류의 바다, 조선통신사 - 수군의 임명과 운영 - 조운의 기록	- 그래픽 패널 - 수군조련도, 조선통신사 선단도 등 디지털 아트 연출
3부	바다로 이어진 문화와 예술	- 도자기, 나전, 서화 등 예술 속 나타나는 해양 자료	- 그래픽 패널 - 검재 정선 산수화, 나전 공예품, 병풍, 도자기 등

- 예산 : 이억오천이백팔십이만칠천이백사십칠원(₩252,827,247원)
- 성과 : 당초 계획한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모션 북 등을 연출하여 전시에 흥미 요소를 증가시켰으며, 카페트와 별도 조명장치를 활용하여 전시물의 집중도를 증가하여 명품 100선 유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였음

〈명품 100선 전시모습〉





〈테마전시〉

1. 원양어업 60주년 기념 ‘만바다, 만선의 꿈’

- 목적 : 원양어업 진출 60주년을 기념하여, 원양어업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원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원들의 모습과 원양어업의 의미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2017. 6. 29. ~ 2017. 9. 17.
 - 전시자료 : 총 22건 28점
 - 전시구성(안)

구분	주제	전시내용	전시자료 / 연출매체
프롤로그		전시를 개최하며	
1부	원양어업의 역사	- 원양어업이란 - 원양어업의 60년 - 청새치 이야기 - 원양어업 어장도	- 대한 뉴스 영상 - 60년 연표 및 수산 창간호 - 지남호, 백경호 사진 기사 및 사진 - 고려원양 주식 등 관련 자료 - 청새치 모형
2부	원양선원들의 삶	- 원양선원들의 공로 - 선원의 꿈을 키우다 - 선원들의 이야기	- 한국원양산업협회 제공 사진 - 지남호, 흥양호 승선자 제공 사진 - 이인호 선장 관련 자료 - 지남호 모형
3부	원양의 미래	- 원양어법의 소개와 어법의 추이 - 선진해양강국의 미래	- 트롤어업론, 복양어업 참고 자료, 어업발전 오개년 등
에필로그	체험존	- 선원들의 회고 - 원양어업 수심별 어류 분포도 - 포토존	- 청새치 모형 -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어류도감 이미지

- 예산 : 금삼천팔백이십육만이천오백사십팔원(₩38,262,548원)
- 성과 : 원양어업 60주년을 기념한 시의적절한 주제 선택으로 전시와 관련된 언론 보도 횟수가 증가하여 홍보 효과가 컸으며, 부산일보와 공동개최와 한국원양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원양어업 60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만선의 꿈 전시모습〉





〈테마전시〉

1.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기원 ‘해녀 육지로 가다’

- 목적 : 한국 해녀의 삶과 생활문화를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해녀 문화가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서 등재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의미를 전달
- 개요:
 - 2017. 9. 16. ~ 2017. 11.12
 - 전시자료 : 34건 59점
 - 전시구성(안)

구분	주제	전시내용	전시자료 / 연출매체
프롤로그	해녀의 물질	해녀의 물질 영상 및 사진 이미지	해녀박물관 제공 영상 해녀 물질 촬영 영상
1부	해녀의 역사	세계 나잠어업 문화 우리나라 해녀의 시작	세계 나잠문화 분포 지도 문헌기록, 관련 신문기사
2부	출향(出鄕) 해녀	해녀, 육지로 가다(제주해녀의 바깥물질) 해녀, 육지에 정착하다(출향 해녀의 삶과 생활)	물질도구 및 생활 자료 해녀관련 노동요(영도)
3부	한국 해녀의 가치와 의미	대한민국 해녀의 전승과 보존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소개 및 등재 기준 한국해녀 분포 자료

- 예산 : 금사천구백삼십육만육천팔백십원(W49,366,810)
- 성과 : 우리나라 해녀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제주 해녀 이외 육지 해녀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관람객의 인식변화의 전환 계기 마련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맞춰 시의성 있는 전시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해녀와 함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홍보에 기여



3. 자료수집 및 보존처리

〈소장자료 관리 현황〉

1) 소장자료 현황

(2017.12.31. 기준)

석	지	금속	토제 /도자기	초제 /나무	피모	사직	종자	광물 /유리 /보석	고무	골각 패갑	합성 재질	기타
47	13,303	2,009	228	1525	87	575	4	1,313	3	712	806	1,704
총계 22,316점												

2) 지정문화재 현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부산광역시지정
문화재자료 제99호

〈봉별시고〉	〈통신사 수창시〉	〈시고〉	〈화조도〉	〈백자철화운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년 • 제12차 사행의 부사 이면구와 일본 학자들이 시문수창을 나눈 두루마리 형태의 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83년 • 통신사와 일본학자들이 서로 주고 받은 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년 • 동강 피종정이 통신사 사자관으로 갔을 때 쓴 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년 • 통신사 화원 이익양의 채색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세기 • 몸통의 비늘문양을 붓칠로 등성등성 자유롭게 표현, 구연부 철화퇴점이 유일함

3) 유물(자료)수집 현황

구분	수집분야	수량		대표자료
		건	점	
2017년	해양역사·문화 산업·과학	187	708	「유럽 포르톨라노해도」, 「조선해동어 일괄 문서」, 「광개토대왕비 탁본」, 겸재 정선 「산수화」 등

4) 기증현황(2017년)

기증자	수량		대표자료
	건	점	
김은하	1	1	대외관계 물목 문서
홍민재	1	2	해류병 습득 보고용 엽서
홍수민	1	1	가리
윤호석	1	4	주꾸미단지
김민성	2	2	1978년 제작 남해안해도
김도연	1	1	1965년 제작 남해안해도
김도현	96	135	잠수용 헬멧
강현희	9	13	함
윤재성	1	1	나침반
장순근	209	251	1차 월동대 단체 사진
Michael Shevelev	1	1	자크 이브 구스토, 『Le Monde du Silence』
김주식	2	2	오봉근, 『조선수군사』
설인철	7	24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임용장
조민준	1	3	동의보감
박현욱	10	22	약따르개와 약순가락
남해해양조사사무소	5	5	음속관측기
송기식	1	1	도자기 그물추
김민정	8	8	잠수사 동문회 감사패
	357	477	

5) 소장품 대여현황(2017년)

대여기관	대여자료	수량		대여기간
		건	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선인래조기 등	5	6	2016.11.10. ~ 2017.04.04.
부산시청 수산자원과	빛과 갯벌이 만든 길 등	30	30	2017.03.30. ~ 2017.03.3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육분의 등	3	3	2017.06.08. ~ 2017.08.2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선수산회의 조선어업령 축조강의고본 등	30	71	2017.05.19. ~ 2017.08.2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해양대학교 입학 안내	1	1	2017.08.23. ~ 2017.11.10.
한국국지진흥연구원	한국남극관측탐험대 한국해양소년단연맹배낭용 깃발 등	17	249	2017.09.04. ~ 2017.10.31.
해정박물관	라페루즈 탐험기 등	2	2	2017.10.12. ~ 2018.01.09.
부산과학교육원	자이로 리피터 등	17	27	2015.01.01. ~ 2019.12.31.
	계	105	389	

6) 소장자료 활용 현황(2017년)

내용	실적	비고
복제	109건 195점	조선통신사 수창시 등
열람	97건 260점	수근조련도 등
DB구축	107건 189점	2017년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충 사업
계	313건 644점	

〈보존처리 현황〉

1) 소장품 보존처리

처리년도	구분	재질	대상자료	건	점
'15	수장자료	목제/목칠기	어피유서통 등	3	13
		서화/지류	지도작성법 등	9	9
	전시자료	금속	영국제만원경 등	6	6
		목제/목칠기	어피도	1	2
	소계			19	30
'16	수장자료	목제/목칠기	대모바독판 등	8	9
		유리	크리스탈 기념패	1	1
		서화/지류	교지 등	13	19
	전시자료	서화/지류	장보고 표준영정 등	1	1
		기타	아라파니호	1	1
	신수자료	금속	잠수용 헬멧 등	4	6
		목제/목칠기	공구상자	1	1
		기타	잠수복 등	2	2
	소계			31	40
	'17	수장자료	서화/지류	용신 등	5
목제/목칠기			소금바구니 등	7	7
직물			물소종이 등	5	5
전시자료		금속	빗창 등	10	12
		기타	선구자 2호 등	4	4
		목제/목칠기	거피칼 등	8	8
		서화/지류	화조도 등	3	4
신수자료		서화/지류	병중기관사 면허장 등	5	5
		기타	민어낚시	1	1
		목제/목칠기	벼루함 등	10	24
소계			58	75	
총계			108	145	

2) 수장고 관리

구분	기간	내용	처리완료(횟수)
소장자료 훈증소독	2017.12.07. ~ 2017.12.11.	구입 자료 훈증	1회
수장고 소독	2017.08.14. ~ 2017.11.06.	수장고 방제 소독	2회
종합적유해생물관리(IPM)	2017.04.24. ~ 2017.11.06.	수장고 생물피해 예방 조사	5회

4. 학술조사 및 출판 현황

<연간 학술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기간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연구	서해 영해기점 도서 10개소	2017.01. ~ 12.
통신사 선단의 해상 사행 연구	1607~1764년까지 약 150년 동안 파견된 통신사 선단의 해상 사행	2017.01. ~ 12.
해양역사인물 조사	근초고왕 생애, 관련 사료, 인물, 문화유산, 논저목록, 4세기대 삼국 및 동아시아 유물	2017.02 ~ 12.

<학술도서 발간 현황>

구분	도서명	내용	발간일자
-	동삼풍어제	동삼풍어제 당일의 기록과 동삼풍어제가 존재하게 된 인문, 자연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과정 수록	2013.12.20.
-	해양인물조사1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양식업-김인배, 포경업-김옥창, 조선업-김재근, 도선업-배순태)에 대한 조사 내용 수록	2016.12.21.
학술총서	충민공계초	이순신장계 68편 탈초·번역·해제·교감 영인본 수록	2017.12.20.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	1607~1764년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의 해상 사행 조사 연구 결과 수록	2017.12.20.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이순신 충민공 계초로 말하다’ 학술대회 심화 내용 수록	2017.12.22.
해양조사보고서	서해 영해기점 도서	서해 영해기점 도서 10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수록	2017.12.20.
번역총서	라페루즈의 세계일주 항해기	서양인이 우리나라 해안을 직접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해 기록한 최초의 자료가 담겨있는 『Voyage de La Perouse Autour du Monde』를 번역 및 해제한 내용 수록	2016.12.15.
	쓰시마일기	일본 유학자 구사바 하이센(草場 珮川)이 마지막 통신사였던 신미통신사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津島日記』를 번역 및 해제한 내용 수록	2017.12.20.
해양수산부지정 해양역사인물자료집	근초고왕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역사인물 17인 중 ‘근초고왕’ 관련 자료 수록	2017.12.22.

<학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주제	일자
국제학술대회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2016.11.29.
	용, 제왕의 용, 바다의 용	2017.11.01.
국내학술대회	이순신, ‘충민공계초’로 말하다	2017.05.10.

5. 해양도서관 운영현황

해양전문도서관으로 '18년 3월 현재 46,852권(해양도서 7,840권) 보유, 해양 분야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 해양도서관 일반 개요 >

관 종	전문도서관(1급)				
홈페이지	https://lib.knmm.or.kr				
전화번호	051-309-1882~1888	FAX	051-309-1889		
전문분야	해양문화, 해양역사/영토, 해양문학 등 해양 분야 전문도서관				
연면적(m)	1,448	열람실 좌석수(석)	159	이용자 PC수대)	17
세미나실	유(예약신청)	멀티미디어실	유	무선인터넷	유
어린이자료실	유(어린이도서 및 보드게임 이용)				
원문복사	○	상호대차	○	기타정보지원	○

< 해양도서관 소장자료 보유 현황 >

(2018.03. 기준)

종류	권(수)	구성비
해양관련 전문도서	7,840권	16.7%
일반교양도서	27,653권	59.0%
어린이도서	7,006권	15.0%
참고도서(사전류, 연감, 보고서 등)	2,542권	5.4%
DVD, 지도 등 비도서	1,821점	3.9%
연속간행물·WebDB	82종	-
합계	46,862권	100%

< 해양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

해양도서관 소장자료와 연계 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서 전시, 공연, 북콘서트 등) 운영

(2018.03. 기준)

연도	문화	기간	참여인원	총 인원
2015	9월 독서의 달 - 별주부전 인형극 - 도서관 속 작은 영화관	09.01 ~ 09.30	948명	948명

2016	제1회 해양인문학프로그램 - 바다를 읽다(16회 강연)	04.06 ~ 12.07	1,472명	16,586명
	4월 도서관 주간 -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 - 도서관 속 갤러리 토크	04.12 ~ 05.15	6,880명	
	9월 독서의 달 - 해양어린이도서 빛 그림 공연 - 검색 체험 : 바다 생물을 찾자 - 세계의 박물관 도록 전시	09.03 ~ 09.30	8,234명	
2017	제2회 해양인문학프로그램 - 바다를 여행하다(11회 강연)	04.05 ~ 12.06	475명	27,256명
	4월 도서관 주간 - 수중고고학도서 전시 - 수중고고학 북콘서트	04.28 ~ 05.26	7,406명	
	8월 도서 전시 - 북극곰 살리기 도서 전시	08.11 ~ 09.08	14,847명	
	9월 독서의 달 - 도시를 읽다 : 독일의 도서관 건축	09.05 ~ 09.24	4,528명	

〈해양도서관 해양인문학총서 발간 현황〉

대국민 대상 해양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해양도서를 기반으로 한 해양인문학총서 2회 발간

2016 해양인문학총서1		2017 해양인문학총서2	
	바다를 읽다 - 바다와 인류문화의 관계사 (2016.12.23. 발행) * 제1회 해양수산부 독서대전 추천해양도서 선정(2017.09)		바다를 여행하다 - 인류가 남긴 바다 역사 기행 (2017.12.22. 발행)

〈해양도서관 외부 협력 성과〉

연도	내용	대상기관/단체
2012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	국회도서관
2015	부산항만공사 어린이 해양도서 기증	부산항만공사
2016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참여(전국 대학·전문도서관 자료공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내 보드링(보드게임) 구축 및 운영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8	해양문학도서 기증 및 해양문학 분야 업무협약	(사)한국해양문학가협회

6. 박물관 교육

국립해양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고려한 '전생애주기 해양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자의 구분과 성격, 참여 목적에 따라 해양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전달은 물론 강좌, 미술표현, 진로탐색, 신체놀이,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조선통신사바닷길 유적탐방사업)〉

국립해양박물관의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등재됨에 따라 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일간 해양문화유산 활용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대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 현황〉 13종 22개 프로그램

연번	내용	만족도	인원	
1	상설전시 연계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	-	6,780
2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대화	-	514
3	어린이박물관 연계	우리바다 심형제	-	10,658
4		해양생물 종이접기	-	9,373
5	학교 연계	(상반기) 학교 밖 박물관교실	98.3	199
6		(하반기) 학교 밖 박물관교실	77.8	191
7	자유학기제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소풍와요(해풍)	89.5	553
8		진로체험 콘서트 '해오'	93.6	314
9	진로 연계	청소년 진로체험 '청해진Ⅰ'	95.9	369
10		청소년 인턴제 '청해진Ⅱ'	96.1	24
11	주말가족	(상반기) 박물관 마실가요	93.7	194
12		(하반기) 박물관 마실가요	98.1	168
13	방학가족	유아가족 박물관 꼬물이	98.6	175
14		(겨울방학) 바다마을의 기원, 우리가족의 소망	96.0	282
15	문화이벤트	(여름방학) 박물관이 들려주는 해녀이야기	96.7	175
16		박물관 물들이기	98.6	357
17	정기강좌	제5기 해양박물관대학	86.6	730
18		해양공예교실	100	90
19	문화복지	찾아가는 박물관 '해해(海海)'	98.8	94
20		지역아동센터 연계 '해랑(海浪)'	96.1	166
21	추가 프로그램	해양기관 연계(해조류염서만들기)	-	158
22		특별전 연계(전복 따라간 해녀)	96.5	123
		평균 94.7	총 31,687	

7. 문화행사

명절, 어린이날, 송년 뿐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와도 즐거운 박물관이 되고자 월별테마가 있는 행사 및 기획전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지역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1. 바다인형극 2. 가족뮤지컬 '조선미술사' 공연 3.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4. 거북선 만들기 대회 5. 영도의 가을 송년행사 7. W-Science 페스티벌 8. 김승진 엄홍길의 산과 바다를 정복한 독종콘서트

2017년 주요 문화행사

바다인형극	03.14 ~ 03.31 10.19 ~ 12.22	‘토끼와 자라의 용궁이야기’, ‘총치 해적왕’ 등 해양을 배경으로 한 복합 인형극 상연	총 33회, 6,180명
해양애니메이션 상영	06.03 ~ 12.30	‘꼬마해녀 몽니’, ‘옥토넷’ 등 해양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상영	총 41회 9,476
거북선 만들기 대회	04.29	이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여 거북선 조립 대회 및 장군복 입어보기 체험	총 43팀 141명
가족뮤지컬 ‘조선마술사’ 공연	05.03 ~ 06	가정의 달을 맞아 효를 주제로 한 복합뮤지컬 상연	930명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05.13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8개소에서 진행되는 그림대회의 부산대회 진행	약 2,000여명
김승진 엄홍길의 산과 바다를 정복한 독종 토크콘서트	08.24	요트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함께 자신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260명
영도의 가을	09.02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야외콘서트	약 1,500명
추석행사	09.30 ~ 10.09	민족대명절을 맞아 마술쇼, 전통공연,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한 문화행사 실시	3,800여명
W-Science 페스티벌	11.25 ~ 26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함께 하는 해양 과학 축전	3,350여명
해양역사인물 체험	’17.12.05 ~ ’18.01.07	독도의용수비대, 콜롬버스 등 해양위인들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게 역사 알기	3,600여명
송년행사	12.23 ~ 25	드로잉쇼, 에어피쉬 조정 체험 등 연말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5,800여명

8. 대내·외 교류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국립해양박물관은 전국 30여개 해양수산 관련 박물관·과학관·아쿠아리움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는 회원관 공동 프로그램, 정보 교류, 공동 홈페이지·뉴스레터 운영을 주관하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동사업		
바다와 일렁일렁 유리병 편지	2017.02 ~ 09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소금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해저VR 프로그램	2017.01 ~ 12	국립해양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국제해양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ritime Museums) 제18차 총회 참석〉

국제해양박물관협회(이하 ICMM)는 전 세계 해양박물관들의 협력을 위해 1972년 구축되었으며, 2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4년 ICMM 회원 가입 후 총회에 연속 참여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총회에서는 주제발표를하며 박물관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기간	2017.10.15. ~ 20
장소	칠레 국립해양박물관(발파라이소시 소재)
발표주제	옛 해양문화의 현대적 재생-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발표자	전시기획팀 이상현 팀장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를 다채롭게 알릴 수 있도록 전시·교육·학술 등 각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기관과의 협업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 타쿠시, 구글 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津島日記』 번역·영인 출판물 발간에 관한 협약	2017.04	일본 타쿠시
편편스쿨(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협약	2017.0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설공단스포윈, 국립부산과학관
Google Cultural Institute Content Hosting&Service Agreement	2017.08	구글 코리아
학생 해양교육 콘텐츠와 다양한 해양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서	2017.11	전라북도교육청
보드게임 기반 작은도서관 '보드랑' 구축 업무협약서	2017.11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매장문화재 보존처리 위탁을 위한 업무협약	2017.12	울산문화재연구원

편집자의 말



해주항아리 海州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Originated from Haeju Area
 광복 이후 / 입지름 16.1~23.7, 지름 39.0~62.4, 높이 32.2~66.0

지느러미를 힐끔, 꼬리를 살짝 흔드는 것만으로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유연하게 물을 헤치고 나가는 물고기의 모습을
 낮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고 왠지 평화로워진다고 할까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선조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큰 항아리에 시원스러운 푸른빛 연료로 담대하게 그려놓은 물고기들은
 금방이라도 펄떡거리며 항아리 밖으로 튀어 오를 것 같네요.

항아리의 유려한 선에 한 번 감탄하고,
 소박하면서도 시원스럽게 펼쳐낸 물고기 문양에 한 번 더 반해
 가만히 두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두 번째로 펴내는 이번 연간 메르진이
 해주항아리 같으면 좋겠다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 있겠지만
 뭐, 까짓것 욕심 한 번 부려 보겠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두고 언제든지 편하게 보고 싶은
 그런 책이 되고자 정성을 다했으니
 곁에 두고 오래 예쁘게 여겨주시길 바라봅니다.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발행인 국립해양박물관장 손재학

기 획 운영본부장 김주식
경영기획실장 김영길
대외협력팀장 임대혁

편 집 대외협력팀 반영난

발행일 2018년 4월 20일
